感應篇

義

2nd Book

There were 5 books in the set 1 & 3 are lacking.

A Barbarian

of Liaoxun

C O Pulman

K-1927
4270
v.2

太上感應篇圖說卷之二目錄

刑官善報
范純仁　王旦　楊旬　錢若水
張慶
刑官惡報
梁統　周興　索元禮　張汝慶
李若水　楊鐸　歐陽遇　李元禮
史官善報
衛仲達
史官惡報
江陰二生
言官善報

林鎬　劉元昌

言官惡報

林機　王翰　杜肅

養民官善報

趙抃　姚思仁　王珣　張淇

曾櫻　楊詣　馬默　袁了凡

葉夢得　劉矩　祝乾壽　崔廷

養民官惡報

郭崇義　韋公幹　陳潔　宋昇

嚴延年　邵知府　張寶　李緒

梁緯　許某　狄知縣　鄭清臣

黃同知　王通判

范純仁

范純仁知慶州見獄中罪人皆滿公曰何不責保在外判
司白曰此輩多屠販竊盜釋之必復累官司矣公曰終當
何如曰往往疾斃獄中是亦除民害耳公蹙然曰法不當
死在位者必欲殺之豈理耶遂盡呼至庭下戒之曰爾輩
爲惡不悛在位者不肯放汝懼爲民害復累官司耳汝等
能改過我便放汝衆叩頭曰敢不佩服教令遂釋之歡呼
而出轉相告語轉相勸勉是歲犯法者減舊歲之半

범순인이시졸경중의도임홈여옥중의죄인아갈특홈을
보고물어왈이죄인을어이쳐결홈여놋치아니홈뇨옥
니뒤왈이무리모도ᄉᆞ도홈기와도적질홈눈무리만흔지
라노흔즉반도시ᄯᅩ법의범홈리니도시관가의근심이될
가홈이로소이다공왈연즉필경엇지홈눈다뒤왈가

는지오리면죵죵옥중의서병들어죽ᄂᆞ니이ᄯᅩ한의
민죄히홈이라ᄒᆞ거ᄂᆞᆯ공왈법의맛랑이죽지아ᄂᆞᆯ
졸ᄅᆞ관원이되여긔어히죽도록홈이ᄀᆞ무ᄉᆞᆷ도리ᄀᆞ요
ᄒᆞ고이에모든죄인을불너경계ᄒᆞ여왈너의무리악
을딧고ᄀᆞ치지아니ᄒᆞ면관원이즐겨노치아니홈은ᄃᆞ시
빅셩을해ᄒᆞ여ᄃᆞ시관가의ᄀᆞᆫ심이될가두리임이니너희
능히허물을고칠진ᄃᆡ맛랑이너희ᄅᆞᆯ노하보ᄂᆡ리라
ᄒᆞ니모든죄인이고두ᄒᆞ여ᄃᆞ시죄짓지아니홈을ᄃᆞ짐ᄒᆞ
거ᄂᆞᆯᄃᆞᆫ여가노흐니죄인등이즐겨부르짓며나가고서
로경계ᄒᆞ여ᄃᆞ시범법지아니ᄒᆞ니이ᄒᆞ의범죄ᄒᆞᆫ지
젼ᄉᆡ여서반이못ᄒᆞ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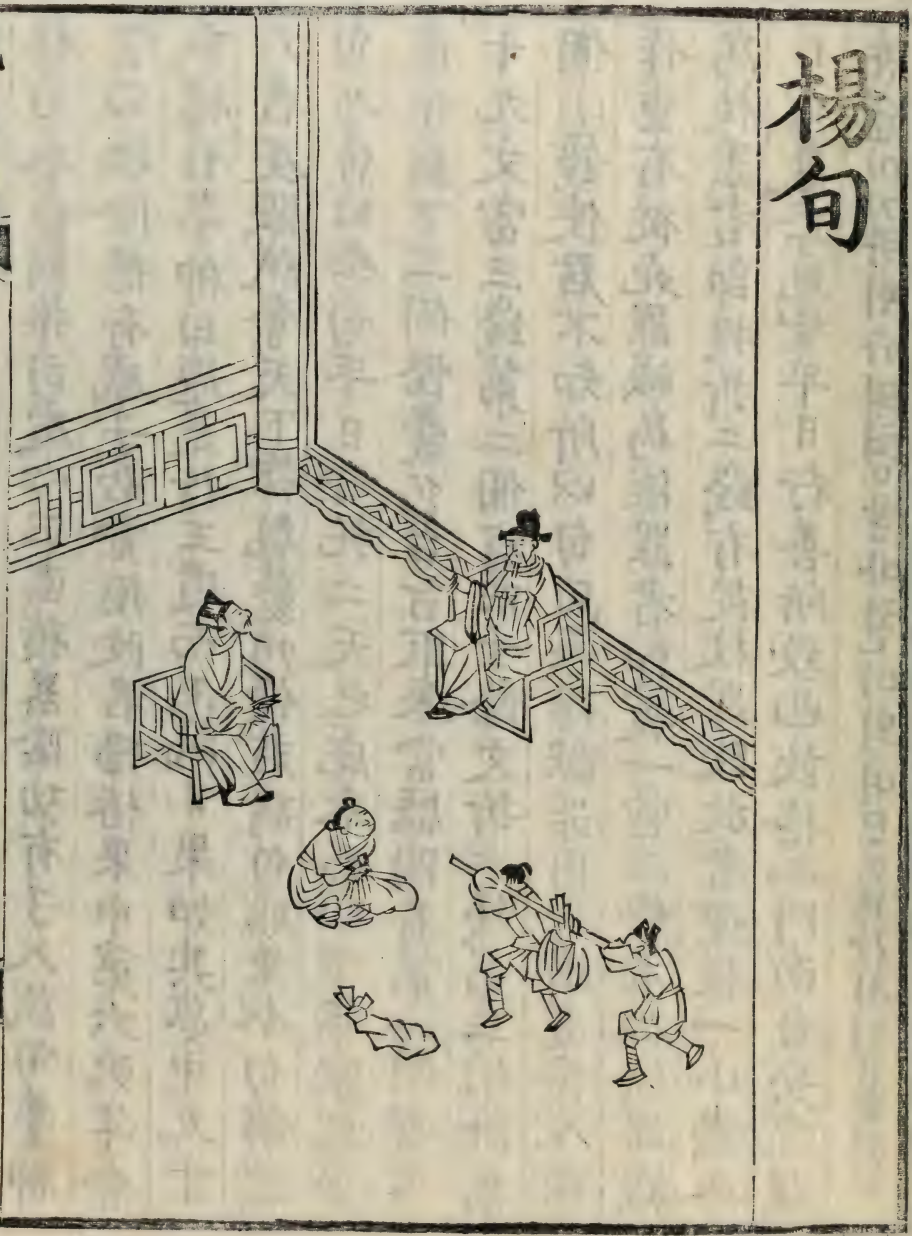
元旦

王文正公旦初釋褐知江陵獄有一囚罪當死公求出之一夕不寐至五鼓忽然得路卽趨出則吏卒皆環侍驚語相向公怪問之曰値更者方擊五鼓忽聞空中有聲曰起公將出矣方起整衣不意果出公默然心契因引囚出讞竟爲平反

왕문정공듀ᄂᆞᆫ송나라지샹이라ᄎᆡ음의강능원을ᄒᆞ엿더니옥의ᄒᆞᆫ죄인이잇시되쥭기로결ᄎᆡᄒᆞᆫ비라공이그죄ᄅᆞᆯ의심ᄒᆞ여ᄉᆞᆯ오고ᄌᆞᆨᄒᆞ되묘리업음을근심ᄒᆞ더니일ᄀᆞᆫ은밤을당ᄒᆞ여자지아니코ᄉᆡᆼ각ᄒᆞ다가오경의ᄂᆡ르러홀연이ᄉᆞᆯ날길을엇은지라ᄉᆡᆨᄅᆞᆯ길ᄃᆞ리지못ᄒᆞ여공당으로나오니발ᄉᆡᆨ니졸이못아ᄃᆡ령ᄒᆞ엿고ᄌᆞᆨ마다놀나ᄉᆡ로말ᄒᆞᄂᆞᆫ지라공이고이

히닉여그연고를무르니뒤왈앗가슈경군시오경을
치노라흐니홀연공중의서웨여왈셜니모다니러나
라공이나오시는니라흐거늘놀나니러나이에모혓더
니불의에과연공이나오시패이라흐거늘공이또흔그
믜음의암합흠을이상이넉이고그옥슈를올녀조세
히무릉니과연원억흐지라드듸여평정결쳐흐니
라

楊旬



楊旬參夔州推司處心正直積累陰功有子入試旬夢神告曰汝陰德有感子必貴須改名楊椿果中第六次年會試椿自夢神曰題是行王道而正試日果如其夢中九十六名及殿試奪天下都魁夔州使君請旬賜坐令旬解職旬乃告曰念旬平日仰托二天之庇奉公四十年家無資產惟留下三個慳囊乞台旨取來當廳開看第一個有三十九文當三錢第二個有四千餘文折二錢第三個計萬個小錢使君不知所以旬曰無詳讞罪囚但遇吏胥入輕作重有從死罪減爲流罪者卽投一當三錢有從流罪減爲杖罪者卽投折二錢有從杖罪改放者便投一小錢今日旬兒奪魁皆平日行善所致也敢捨公門而自安逸哉

양순이기쥬릐슈의형방아젼이되여무음가지기를져

직히ᄒᆞ고음덕ᄉᆞᄒᆞᆷ을됴하ᄒᆞ더니그아ᄃᆞᆯ이과거의갈서
ᄭᆞᆷ의ᄒᆞᆫ신령이니ᄅᆞ와ᄅᆞ네음덕의감동ᄒᆞᆷ이ᄋᆞᆺ서아ᄃᆞᆯ
이반ᄃᆞ시ᄃᆞ귀ᄒᆞᆯ지니맛랑이일홈을곳쳐양충이라ᄒᆞ
여쥬라ᄒᆞ더니과연그초시의참방ᄒᆞ고ᄎᆞ년회시ᄉᆞ의양
충의ᄭᆞᆷ의또신령이글제를미리이르더니또ᄒᆞᆫ참방ᄒᆞ
고ᄆᆡᆺ쥔시ᄎᆞᆯ방ᄒᆞ미련하도쟝원급제를ᄒᆞ여ᄉᆞ더라기
쥬ᄃᆡ쉬ᄉᆞᆫ을청ᄒᆞ여좌를쥬고ᄃᆡ하ᄒᆞ니ᄉᆞᆫ이고ᄒᆞ여왈
성각건ᄃᆡ순이평일의하ᄂᆞᆯ의도ᄋᆞ심을ᄂᆡ보ᄉᆞ와아문의
봉공ᄒᆞ온지ᄉᆞ금ᄉᆞ십여년의집이가난ᄒᆞ여남은지샨
이업ᄉᆞ오ᄃᆡ오직ᄉᆡ낫쥬머니잇ᄉᆞ오니이제가히가져와
보ᄉᆞ이다ᄒᆞ고집의사ᄅᆞᆷ을보ᄂᆡ여ᄉᆡ쥬머니를가져오라
ᄒᆞ여ᄉᆞ려보니ᄒᆞᆫ쥬머니의ᄂᆞᆫ큰돈삼십구리잇고ᄒᆞᆫ쥬

머니의는중돈스천여기 잇고흔쥬머니의는적근돈만
여기잇는지라히쉬그연고를므르니슌왈이는미양
옥쥬의죄를정흐오미혹각박흔아젼의쥬단으로
경흔죄를중히지우거든니힘써가븐야븐게흐오미죽
을죄를고쳐귀향가게흐면큰돈흐나흘너코귀향갈죄를
고쳐티장흐게흐면중돈흐나흘너코티장죄를고쳐
빅방흐게흐면적근돈흐나흘너흐니이는곳세가지
돈닛는쥬머니라금일아들의장원이도시평일착흔
널갑흠이니엇지범연타흐리오흐더라

錢若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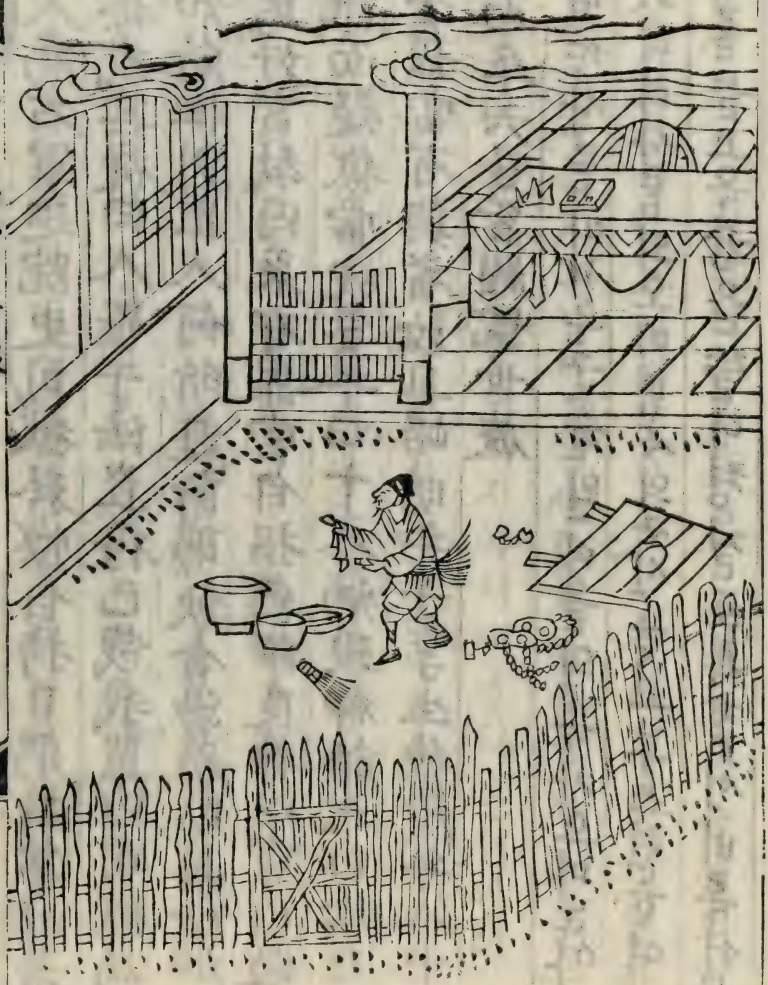
錢若水爲同州推官有富民失女奴父母訴於州委之錄參舊與錄參隙遂申核富民父子共殺投屍水中富民已誣服獨若水遲疑錄參指廳詬曰汝得賄欲出之耶若水笑曰父子皆坐重辟豈不容某熟察又越旬不決知州亦有言若水終不奪一日若水詣州所屏人告曰其女奴之父母實羨富民之家財因其無隙可乘遂匿其女而傾陷之今得之矣知州遂釋富民父子富民詣若水謝閉門不納富民遶垣而哭知州欲以此奏之朝廷若水辭曰某初心止圖拔冤非圖爵賞且朝廷聞之如錄參何知州嘆服太宗聞其事擢知制誥進樞使歷禮部尚書後無病而終

젼약슈라ᄒᆞᆫ 사ᄅᆞᆷ이동쥬쥬관이되엿더니그ᄭᅵᆺ부ᄆᆞᆫ이ᄋᆞᆺ셔ᄒᆞᆫ계집ᄭᆞᆫ을일ᄒᆞᆫ지라죵의부ᄆᆡ고을의소지

ᄒᆞ엿건ᄅᆞ지쥐녹참의게맛겨ᄉᆞ힉ᄒᆞ라ᄒᆞ니녹참이본
ᄃᆡ그부민과혐의잇ᄂᆞᆫ지라ᄃᆞᆫᄃᆡ부민의부ᄌᆞ를잡으되
그죵을죽여물속의감초다ᄒᆞ여궁극히쥐쥬니부민이형
벌을견ᄃᆡ지못ᄒᆞ여이의ᄋᆡ이승복ᄒᆞᆫ지라약쉬그옥ᄉᆞ
ᄅᆞ의심ᄒᆞ여ᄃᆞ시ᄉᆞᆯ피려ᄒᆞᆫᄃᆡ녹참이쉉샹을가ᄅᆞ쳐약
슈를ᄉᆞ지겨왈네회뢰ᄅᆞ를밧고부민을노ᄒᆞ려ᄒᆞᆫᄂᆞ다ᄒᆞ니
약쉬웃고왈이제사ᄅᆞᆷ의부ᄌᆞ함께죽을죄의ᄃᆞ렷건ᄂᆞᆯ
엇지ᄌᆞ세히ᄉᆞᆯ피지아니리요ᄒᆞ더라또일슌이지ᄂᆞ미지쥐또
ᄒᆞᆫ결옥ᄒᆞ라ᄒᆞᆫᄂᆞᆫ말이잇ᄂᆞᆫ지라약쉬마ᄌᆞᆷ닌ᄃᆞ지아니ᄒᆞ
ᄃᆡ니일ᄌᆞ운약쉬지쥬의게나아가사ᄅᆞᆷ을믈니고ᄌᆞ ᄒᆞ여왈그
죵의부뫼실노금부민의ᄌᆡ물을탐ᄒᆞ여모히고겨함을로
제ᄃᆞᆯ을감초고옥ᄉᆞ를ᄂᆡ루미라이제그ᄃᆞᆯ을ᄎᆞᄌᆞ시니

옥졍을가지로소이다ᄒᆞ니지쥐그말을듯고고게귀특이
녀겨즉시부민의보ᄌᆞ를노코이날노뷔조졍의알외려
ᄒᆞᆫ디약쉬ᄉᆞ양ᄒᆞ여왈나의쳑음ᄆᆞ음이다만사ᄅᆞᆷ의
의ᄆᆡᄒᆞᆫ죄를벗겨원억ᄒᆞᆫ디샌지우지말고쳑음이니작
상을의ᄒᆞᆫ비아니요또ᄒᆞᆫ조졍이ᄀᆞ닐을드르면녹참의죄
만흘지니엇지ᄇᆞᆯ가ᄒᆡ아니리오ᄒᆞ니지쥐더옥란복ᄒᆞ
더라ᄃᆡ죵이드로시고귀특이녁이샤츄밀ᄉᆞ를ᄒᆞ이시고
그후벼슬이녜부상셔의니르럿더라

張慶



張慶汴人爲右軍巡院吏司獄矜愼自持日躬持筩滌暑月尤勤每戒其徒曰人罹于法豈得已哉我輩以司獄爲職若不知所恤則罪人何所赴訴耶飲食湯藥臥具必加精潔嘗爲好言敎囚果有罪當自招無誣良善以重已過故不拷訊而疑獄常波妻年四十八病歿神語之曰汝夫陰德大子孫當有興者汝且歸明年子享生後慶年八十二無病而卒六子皆顯號世族

장경은 변 사람이니 우군순원 마을의 옥가으마는 아전이 되엿더라 사람되오미 범스의 근신 ᄒᆞ고 부즈런 ᄒᆞ여 날마다 ᄇᆡᆨ를 들고 옥중을 쓸어 정결토록 ᄒᆞ ᄉᆡ 비록 성ᄒᆞᆫ 더위라도 더옥 성근 ᄒᆞ더라 ᄆᆡ양 동료를 경계 ᄒᆞ여 왈 사람이 법의 걸니ᄆᆡ 마지못 ᄒᆞ여 가도며 ᄃᆞ시 ᄅᆞᆯ지언정 우리

무리옥가으마는직칙이잇스니엇지무휼치아니리오만일
우리잇서고호치아니ᄒᆞ면죄인들이어리가하소연ᄒᆞ리
요ᄒᆞ고음식과탕약과와구를겸ᄒᆞ고편토록ᄒᆞ여죄인
을쥬고상히됴흔말노써죄인을ᄀᆞᄅᆞ치되과연죄잇거
든스스로복초ᄒᆞ을거시오냥선ᄒᆞ사름과의미ᄒᆞ사름을무
소ᄒᆞ여졔몸의즁ᄒᆞ허물이되지아니케ᄒᆞ라ᄒᆞ니이러
므로모든죄인이감복ᄒᆞ여괴로이치지아니ᄒᆞ되의심되옥
스를미양공평이결단ᄒᆞ더라그쳐의나히ᄉᆞ십팔이오
또ᄒᆞ을무ᄌᆞᄒᆞ더니일ᄌᆞ은병들어쥭은지라그혼이명부의
드러가니신령이잇서날너왈네지아비음덕이셔샹의
큰지라네ᄌᆞ손의맛강이ᄒᆞ호로직이실거시니너는가히도
라가라명년의맛강이싱ᄌᆞᄒᆞ리라ᄒᆞ거늘드ᄃᆞ여회

싱흐여이말을니르고부븨셔로귀이히넉이더니그후
의뎐흐여뉵즈를나코경은나히팔십이의병엄시
졸흐고그후뉵지모다부귀현달흐여세딕거족이되
니라

梁統

漢梁統上言乞增重法律當時不從其議後統忽夢神人告曰雖幸朝廷不從爾言陰府已錄爾過爾今欲以刑毒人將來爾子孫皆被刑死獲罪于天無所禱也後統二子皆以非命死至冀皆滅族此刑報也冒起宗曰梁氏增刑議雖未浚而舉念已墮惡業是以陽誅陰譴禍及子孫夫人舉念可不愼與

한나라 냥통이표를올너형법을중히ᄒᆞ기를청ᄒᆞ니 조정이그의논을좃지아니ᄒᆞ엿더라그후ᄃᆞ통의ᄯᆞᆷ의홀연신인이잇셔닐너왈네조정의청ᄒᆞ여형벌과법을중ᄒᆞ게ᄒᆞ랴ᄒᆞ미비록조정이좃지아니ᄒᆞ엿시나명부의이미네죄를긔록ᄒᆞ얀지라네이제ᄆᆞ음을독히ᄒᆞ여형벌노써사람을ᄒᆞᆫ고ᄌᆡᄒᆞ니이러므로네ᄌᆞ손이모다형벌의죽을거시요

이미하늘의죄를어덧시니빌어도유익지아니리라ᄒᆞ
더니그후의과연동의두아들이다비명의죽고또동의
ᄌᆞ손냥리의게나ᄅᆞ러멸족ᄒᆞ는화를당ᄒᆞ니이는형벌
의보응을밧으미러라 모리죵이ᄀᆞᆯ오ᄃᆡ냥시의형벌더
ᄒᆞ자ᄒᆞ는의논이비록힝ᄒᆡ아니ᄒᆞ엿시나ᄆᆞ음먹으미
이미몸ᄉᆞᆯ기의범ᄒᆞ엿시니이러므로가만ᄒᆞᆫ칙망과ᄃᆞ
러ᄂᆞᆫ형벌이잇셔그앙홰ᄌᆞ손의게밋ᄎᆞ시니ᄃᆡ져ᄉᆞᆯ음이
ᄆᆞ음먹기ᄅᆞᆯ엇지ᄉᆞᆷ가지아니ᄒᆞ리요

周興

唐武后時政尚嚴酷周興希旨暴刻殘酷殺人甚多或告
興與丘神勣通謀武后命來俊臣鞫之俊臣與興方推事
對食謂興曰囚多不服當爲何法興曰此易易耳取大甕
以炭四周炙之令囚入中何事不服俊臣乃索大甕火圍
如興法因起謂興曰有內狀推兄請兄入甕興惶恐叩頭
服罪論死流嶺南中道爲怨家所殺

당나라 무후ㅣ 의정시엄ㅎ고 혹독ㅎ ᄌᆞ라 그ᄭᅴ 의쥬ㅎ
이라ㅎ ᄂᆞᆫ신히 무후의 ᄯᅳᆺ을 마초와 ᄉᆞ오납고 각박ㅎ며
잔인ㅎ고 혹독ㅎ ᄒᆞ여 사ᄅᆞᆷ쥭이믈 도하ㅎ ᄃᆞ니 사ᄅᆞᆷ이ㅣ
ᄭᅴ 쥬ㅎ이 모반ㅎ ᄃᆞ고 ㅎ ᄀᆞᆫ ᄂᆞᆯ 무휘이 의ㅣ ㄴᆞ 쥰신이라 ㅎ ᄂᆞᆫ
법관을 명ㅎ ᄒᆞ여 쥬ㅎ을 국문ㅎ ᄒᆞ라 ㅎ ᄂᆞ니 쥰신이 맛ᄎᆞᆷ 쥬
ㅎ ᄒᆞ과 동관이라 ᄃᆞ부러 좌ㅣ 괴ㅎ ᄒᆞ여 죄인을 쥬문ㅎ ᄒᆞ며 ᄉᆞ

치밥먹더니쥰신이쥬홍드려므러왈죄인이민양승복
지아니ᄒᆞ니무슨법을ᄒᆞ여야됴흘고ᄒᆞ니홍이답왈이
아조쉬운날이라콘독을취ᄒᆞ여노코숫ᄎᆞ로씨ᄉᆞ면을에
우고불을픠우면그독이달흘지니죄인을잡아그독속
의ᄃᆡᄒᆞ면무슨날을항복지아니리요ᄒᆞ니쥰신이ᄉᆞ의
독을가져오라ᄒᆞ여쥬홍의니르던ᄃᆡ로불을픠우고인
ᄒᆞ여ᄂᆡ려나쥬홍ᄃᆞ려날ᄃᆡ와왈군명이ᄉᆞ셔형을츄문ᄒᆞ
라ᄒᆞ엿ᄉᆞ니청건ᄃᆡ형은이독속의들나ᄒᆞ니쥬홍이
겁ᄒᆞ고두려머리를조아항복ᄒᆞ니논죄ᄒᆞ민맛당이
쥭을지라감ᄉᆞ정빈ᄒᆞ여영남으로가더니필경험의
징은사름의게쥭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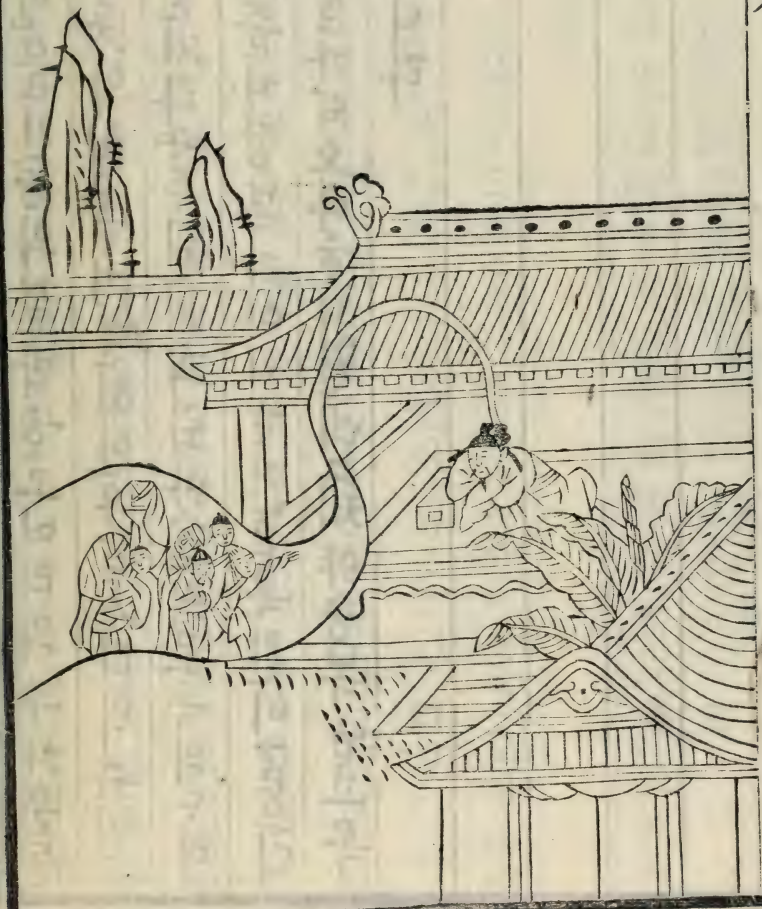
索元禮

唐索元禮性殘虐武后將除異己者元禮揣知上旨卽上書告變因爲制獄作鐵籠鞏囚首加以楔或至腦裂死又橫木關手足展轉晒曝或縛囚梁柱縋石於頭訊一囚又牽連至數百後坐受賕下吏訊之不服曰取公鐵籠來元禮乃服死獄中

당나라삭원녜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ᄉᆡᆼ품이잔인ᄒᆞ고포학ᄒᆞ더니무휘장ᄎᆞᆺ그ᄆᆞ음의맛ᄌᆡ아니ᄒᆞᄂᆞᆫ신하ᄅᆞᆯ덜어ᄇᆞ리라ᄒᆞᄂᆞᆫ시원녜발ᄉᆡᆨ그ᄯᆞᆺ을알고즉시글을올녀고변ᄒᆞ니무휘인ᄒᆞ여원녜로ᄭᆡ그옥ᄉᆞᄅᆞᆯᄃᆞᄉᆞ리게ᄒᆞ니원녜이의ᄉᆡᆨ얼기ᄅᆞᆯ만드러죄인의머리의씌우고그ᄃᆞᆷ의ᄉᆡᆨ아기ᄅᆞᆯ쳐죄오니혹두골이ᄆᆡ여져죽ᄂᆞᆫ지ᄋᆞᄂᆞᆫ지라ᄯᆞ큰남그로착고ᄅᆞᆯ만드러슈족을잠ᄋᆞ고구을녀폭양의

쏘이며 혹죄인을기동의결박ᄒᆞ고머리의무거운돌
을달아시러ᄃᆞ악현ᄒᆞ며ᄒᆞᆫ죄인을ᄃᆞ시리ᄆᆡ슈ᄇᆡᆨ
인이연좌ᄒᆞᆫ지라그후원녜회뢰밧은죄로옥의ᄂᆞ리
워츄문ᄒᆞᆯ시ᄯᆞᆯ겨항복지아니ᄒᆞ거ᄂᆞᆯ옥관이ᄀᆞᆯ오ᄃᆡ
그ᄃᆡ의쇠얼기ᄅᆞᆯ가져오라ᄒᆞ니원녜구ᄎᆡ야승복ᄒᆞ고옥
중의서죽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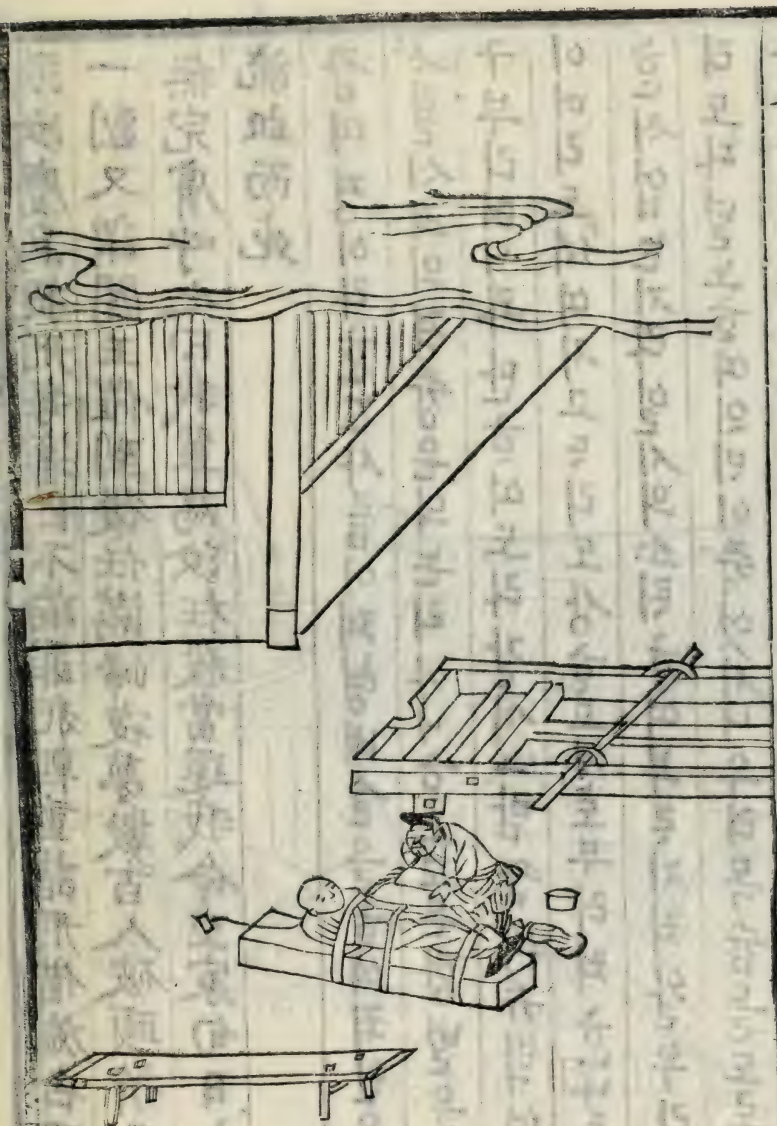
張汝慶



張汝慶爲提刑每審囚不論罪犯輕重諸刑借施名曰打一副又謂閻王催到後任滿歸夜夢數百人破頭折足身無完膚呼之曰我輩爲汝枉殺當還我命至家旬日七竅流血而死

장여경이라ᄒᆞᆫ는사람이제형벼슬을ᄒᆞ여죄인을ᄃᆞ스릴시죄의경중은의논리아니ᄒᆞ고모든형벌을마구부리더니라만ᄒᆞ여도라갈시그밤꿈의ᄉᆞᆫ빅여인이머리도ᄉᆞ여지고ᄃᆞ리도상ᄒᆞ고팔도부러져ᄒᆞ나도성ᄒᆞᆫ지업ᄂᆞᆫ지라일시의소리ᄒᆞ여부르지져왈우리무리모다ᄃᆞᆯ노ᄒᆞ여의미이죽엇시니우리목숨을도로달나ᄒᆞ고못치기를마지아니ᄒᆞ더니집의돌아간지경유열흘은되여칠규로피를흘니고죽으니라

李若水



李若水爲淮南司理時有刼賊五人事敗繫獄言與僧人自成一黨五人已戮僧方追到言實未嘗同盜若水堅執賊語夜以溼紙餬僧口鼻壓以囊須臾臍腹裂月餘獄吏李能無故大叫和尚不干我事特司理驅使耳言訖而死明日推司劉元亦暴卒又明日若水小腹絞痛號呼卒又明日知軍孫誥判官周禹亦皆暴卒後若水一門死無遺類

니약슈는회남스리벼슬을ᄒᆞ여셔의강도ᄃᆞ셔술잡으니강되말ᄒᆞ되일즉ᄒᆞᆫ중을로더부러ᄒᆞᆫ당이되엿다ᄒᆞ더니그ᄃᆞ셔도적을이ᄆᆡ죽인후그중이비로소잡혀와ᄉᆞ건ᄂᆞ의엄을베퍼ᄆᆡ이적쥬나그중이실노의ᄆᆡᄒᆞᆫ지라만단으로원ᄂᆞᆫ통ᄒᆞᆷ을고ᄒᆞ되약쉬마ᄎᆞᆷ니그도적의구초를올

흔쥴노견집흐여드여형벌을엄히흘시밤의적은
조희로씨그중의니빠과코를봉흐여브르고또쥬머니를지
어흙과돌을만히너허비를눌으니비가족이터져
쥭엇더라그후월여의그옥아젼니릉이홀연소리질
너왈나는화상과간섭흠이아니라특별이스리의분
부로구츅흐여시긴비라흐고말을맛츠며쥭고그잇튼
날옥츄스흐는뉴원이또흔폭스흐고또그이튼날약
쉬홀연복통이급흐여소리지르며쥭고또그을지군손
고와관관쥬위다폭스흐고그후약슈의일문이몰스흐
여흐는토남으니엄더라

楊鐸

明楊鐸嘉興人舉庚戌進士授吉安推官生平陰鷙多以密謀陷致人死又性兇暴斃杖下者極多嘗白晝坐堂見羣鬼索命後病歸每爲羣鬼所嚬病日甚已死復甦家人欣幸鐸曰否否陰司遣暫還示顯報耳冤對滿堂亟供酒食多予楮錢家人從之方設酒饌於庭中屠兒倪鐸酌而遇之詬曰此何爲也悉取啖焉羣鬼怒謂楊曰姑緩子而以倪鐸往楊喜謂倪且代已令人往視則倪以腹痛暴卒矣肉未寒也楊即以十金授其家命納棺隨火之乃倪實爲羣鬼所攝法不當死魂歸而屍已灰同羣鬼作厲於楊家爭喫其肉拔其鬚浚其面目周身潰爛而死時鄰適有新死者倪鐸附其屍蹶然起立奔至楊家大呼曰我擊殺其少子以抵焚屍之報乃趨入內踣其少子屍遂仆地遠

近相聞無不驚怖

명나라 양락은 가흥사람이라 일죽진ᄉᆞ ᄒᆞ여 길안고을 츄관벼슬을 ᄒᆞ여ᄉᆞ더니 평성의 음특ᄒᆞ여 가만ᄒᆞᆫ 꾀로 사람을 모히 ᄒᆞ여 쥭을 씌 샌지 우기를 만히 ᄒᆞ고 또 성품이 흉포ᄒᆞ여 사람을 ᄃᆞᄉᆞ리 미 그 쟝하의 쥭은 처무슈ᄒᆞ더라 일ᄉᆞ은 당상의 안젓더니 빅 쥬의 뭇ᄎᆡ신이 ᄃᆞ라들어 목슈음을 달나 ᄒᆞᄂᆞᆫ지라 인ᄒᆞ여 병들어 벼슬을 갈고도라 와ᄉᆞ더니 날마ᄃᆞ 여러 귀신의 보치이 믈밧아 병이 날ᄂᆞ 심ᄒᆞ여 쥭엇더라 쥭은지 오리지 아니ᄒᆞ여 홀연ᄃᆞ시 셔여 나니 집사람이 깃부고 다힝이 넉여 셔로 치하ᄒᆞᆫ 거ᄂᆞᆯ 락왈 ᄂᆡ이 제 회성ᄒᆞᆷ이 아니라 명ᄉᆞ의 셔 날을 잠간 도로 ᄂᆡ여 보ᄂᆡ여 그 갑흠 밧음을 뵈려 홈이라 이 제 원억ᄒᆞᆫ 귀

신이되되여당상의가득ᄒᆞ여시니급히쥬식과지젼
을만히갓초아쥬라ᄒᆞᆫ디가중사람이그말을좃ᄎᆞ즉시
쥬챤을만히장만ᄒᆞ여ᄯᆞᆯ가온디버리더니맛ᄎᆞᆷ동니의
빅졍질ᄒᆞᆫ예닥이라ᄒᆞᆫ지잇셔술을취ᄒᆞ고드러와
이거동을보고소리질너왈이쥬식은엇지ᄒᆞᆫ것고ᄒᆞ며
ᄉᆞᆺ로거두어먹으니뭇귀신이노ᄒᆞ여양닥ᄃᆞ려닐너왈
아직그ᄃᆡ로멈츄고예닥을잡아가리라ᄒᆞ니양닥이ᄀᆞ말
을듯고혜아리되ᄂᆡ몸ᄃᆡ신의예닥을잡아간다ᄒᆞ여가
장깃거ᄒᆞ며사람을보ᄂᆡ여예닥의집의가본즉예닥이
복통으로폭ᄉᆞᄒᆞ여몸이오히려식지아니ᄒᆞ엿ᄂᆞᆫ지라양
닥이즉시십금으로써예가의집사람으로쥬어관곽을
가초아입관ᄒᆞ고즉시소화ᄒᆞ여그ᄒᆞᆫ력을업시ᄒᆞ엿ᄉᆞ

더라이셔예락이모든귀신의게잡히여갓시나기실은맛
당이죽을빈아니라그혼이노히여도라오니져의시신이발
셔찬지되엿ᄂᆞᆫ지라홀일업셔모든귀신으로더부러혼
가지로양가의작난홀시양락의게ᄃᆞ라들어ᄃᆞ토아그
고기를너흘며슈발을ᄆᆡᄃᆞ으며눈을질너셔둥구치
며닛ᄎᆞᆯ헐어상히오니혼신이후란ᄒᆞ여필경죽으
니라이셔의니웃의시로죽은사람이잇더니예락의혼
이그시체의붓허날셔나ᄇᆞ로양가의집의ᄃᆞ러가ᄃᆡ호왈
ᄂᆡ맛당이네아ᄃᆞᆯ을죽여ᄂᆡ시신의불ᄅᆡ온원슈를갑흐
리라ᄒᆞ고이의안흐로ᄃᆞ리ᄃᆞ라양락의어린아ᄃᆞᆯ을발
노박ᄎᆞ죽이고그시체ᄯᅩᄒᆞᆫ업ᄃᆡ려ᄂᆞ러지니원근의ᄃᆞᆺᄂᆞᆫ지
놀나지아니리업ᄃᆡ라

歐陽遇

歐陽遇判大理寺有標陽縣令余紹卿坐事繫獄罪不當
死而遇呈以死人皆稱冤自後行住坐臥卽見紹卿遂至
廬山九天採訪使者觀設壇解謝初夜卽見紹卿在側明
旦投心詞俯伏間被數鬼擒擲殿下血流被體而死
구양우ᄃᆡ리시의벼슬을ᄒᆞ여ᄃᆡ니표양현령여소경이
라ᄒᆞ는사람이잇서옥ᄉᆞ의드러시니기실은죽을죄아니
어ᄂᆞᆯ구양우ᄉᆞ죄로알외여죽이니모다원통타니르더
라그후의안조나누으나소경의혼인ᄂᆞᆫ앱희뵈ᄂᆞᆫ지라ᄒᆞ
일어ᄆᆞ쉬ᄃᆡ산구ᄃᆡ도관의나아가지오ᄅᆞᆫ녀ᄀᆡ도ᄒᆞ로서초야의
보니소경이곳겻히잇ᄂᆞᆫ지라날이실ᄭᆡ의축ᄉᆞᄒᆞ며업ᄃᆞ
렷더니문ᄃᆞᆯ두어귀신이우ᄅᆞ로잡아ᄀᆞᆫ아리로ᄂᆞ리치니왼
몸의피ᄅᆞᆯ흘니고죽으니라

李元禮

福淸李元禮爲龍溪簿攝尉事獲強盜六人在法七人則應改京秩李命弓兵按平民以充數皆論死李遂轉承務郎恆見冤死之民立前及調官泉州束裝出城鬼隨之不去夜宿龍山暴死

복쳥니원녜라ᄒᆞ는사ᄅᆞᆷ이ᄒᆞᆼ계쥬부ᄅᆞᆯᄒᆞ여그고ᄋᆞᆯ날ᄋᆞᆯ셔ᄃᆞ시ᄅᆞᆯ서맛ᄎᆞᆷ강도여섯사ᄅᆞᆷ을잡으니그ᄯᅵ법의도적날곱을잡으면경직으로승품ᄒᆞ는ᄇᆡ라이에냥민ᄒᆞ나흘츙쥬ᄒᆞ여ᄒᆞᆷᄭᅵ쥭이고인ᄒᆞ여승무랑벼ᄉᆞᆯ을ᄒᆞ여ᄉᆞ더니그후로죵ᄌᆞ그원통이쥭은사ᄅᆞᆷ이ᄋᆞᆷ희뵈ᄂᆞᆫ지라밋ᄇᆡ슬ᄋᆞᆯ올마천쥬ᄯᅳ로갈ᄉᆡ셩밧그로나가니그귀신이ᄯᅩᄒᆞᆫ뒤ᄅᆞᆯ ᄯᅳ로ᄯᅥ물ᄃᆡ가지아니ᄒᆞ더니원녜힝ᄒᆞ여ᄒᆞᆼ산ᄯᅳ히ᄂᆞ르러급히쥭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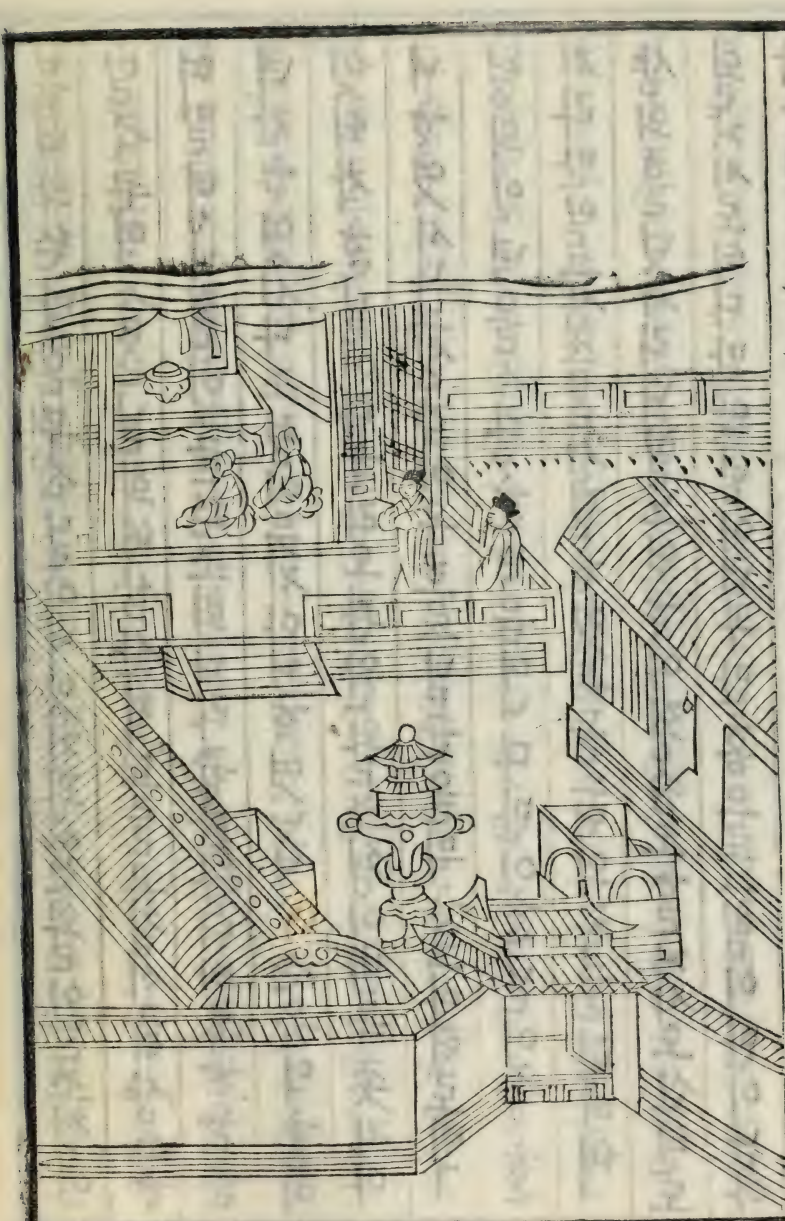
衛仲達

衛仲達初爲館職被擢至冥司冥官命吏具呈善惡二錄
比至則惡簿盈庭善簿纔如筋小官色變索秤稱之其小
軸乃壓起惡簿官喜曰君可出矣仲達曰某年未四十安
得過惡如是之多官曰不然但一念不正此則書之不待
其犯也仲達曰小軸中所書何事官曰朝廷常大興工役
修三山石橋君上疏諫止之此書稿也仲達曰某雖言之
朝廷不從於事何益官曰朝廷雖不從然念之爲君爲民
者卽此一事已足倘使聽從則善念流行乘此拜相度世
矣奈惡念太多力已減半不可復望大拜後果止吏部尚
書

위중달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ᄎᆡᆫ음의ᄉᆞ관벼ᄉᆞᆯᄒᆞ여ᄉᆞ실ᄌᆡ
ᄒᆞᆯ연이ᄌᆞᆨ어명부의드러가니명부관원이아ᄀᆞᆫ을

명ᄒᆞ여즁달의쇠샹의이실제착ᄒᆞᆫ날과악ᄒᆞᆫ날과
록ᄒᆞᆫ거슬가져오라ᄒᆞ여보니악ᄒᆞᆫ날과록ᄒᆞᆫ문셔
는뜰의가득ᄒᆞ고착ᄒᆞᆫ날과록ᄒᆞᆫ문셔는겨우져가락
만ᄒᆞᆫ지라명부관원이노식을ᄭᅵ여좌우를명ᄒᆞ여
져울노두문셔를달아보니그착ᄒᆞᆫ날과록ᄒᆞᆫ적은문
셔의무게도로혀악ᄒᆞᆫ날과록ᄒᆞᆫ만ᄒᆞᆫ문셔여셔ᄃᆡ
무거운지라관원이ᄀᆞ의깃거왈그ᄃᆡ는가히나가리로
다ᄒᆞᆫ거늘즁달이왈ᄂᆡ나히ᄉᆞ십이차지못ᄒᆞ여엇지악
ᄒᆞᆫ허물이ᄀᆞ곳치만흐리오관원이왈이ᄂᆞ그러ᄒᆡ아니
ᄒᆞ여다만ᄒᆞᆫ싱각이라도오ᄅᆞ치아니케ᄒᆞ면이곳의셔즉
지에과록ᄒᆞ엿ᄂᆞ니ᄀᆞᆺᄒᆞ여죄를범ᄒᆞ기를기ᄃᆞ리지아
니ᄆᆞ니이러므로그쉬이러ᄃᆞᆺ만흐니라즁달이왈저적은

문씨의 쓴 말은 무슨 날이니잇가 관원 왈 이는 조정이
일즉 큰역 스를 날희여 삼산 석교를 고칠시 금덕 상소 ㅎ
여 말 녀시니 정히 글 쓴 조희 니라 중달 왈 뉘 비록 글을 올
녀 간 ㅎ 엿시나 조정이 듯지 아니 ㅎ 엿스니 무슨 유익 ㅎ 미
잇시 착 ㅎ 날이라 ㅎ 리오 관원 왈 조정이 비록 좃지 아
니 ㅎ 엿시나 그 성각이 우흐로 님군을 위 ㅎ 고 아리로 빅
성의 인 녁을 스랑 ㅎ ㄴ 마음이니 다만 이 ㅎ 날이 족 ㅎ ㄴ
지라 만일 그 상소를 시행 ㅎ 엿 ㄷ 들 그 뒤의 착 ㅎ ㄴ 덕이 세
상의 흘 ㄴ 시리니 일노인 ㅎ 여 경승도 ㅎ 거시오 신 ㄴ 도
될 거시로 ㄷ 다만 악념이 너무 만흠으로 그 힘이 반이 남아
감 ㅎ 엿시니 ㄷ 시 ㄷ 비 ㅎ 긴 ㄴ 보라지 못 ㅎ 리라 ㅎ 더니 그
후 과연 니부상서 ㄱ 지 ㅎ 니라



江陰二生

萬曆間江陰常脩縣誌有兩生在局纂輯見舊所載節烈內有二人事平平無奇取筆抹去之歸過城隍廟見有兩婦人入內兩生異而尾之婦至神前訴曰某等一生苦節事載誌書今無端爲某某削去兩生聞呼其名卽跪訴曰一時誤筆願卽改之言畢兩婦忽不見矣比歸兩生精神恍惚不久並卒

만녁년간의강음현의일즉읍지를닷글시두션비잇셔그글을모흐더니뎃적읍지의긔록흔녈녀힝적중의두부인이잇스되그날이평〻흐여별노긔특흐음이업ᄂᆞᆫ지라인흐여부ᄉᆞᆯ들어흐리우고읍지의올ᄂᆞ지아니흐엿더니두션비집으로도라갈시길이셩황모ᄅᆞ리나더니홀연보ᄂᆞ두부인이잇셔셩황모안흐로드러가거ᄂᆞᆯ고이히녁여미

좃차드러가보니그두부인이묘신앏희나아가하소연ᄒᆞ
여ᄀᆞᆯ오ᄃᆡ우리둘의평생괴로온ᄭᆞᆯ리로그날이읍지
의실녀건늘무단이아모아모두사름의붓ᄭᆞᆺ희ᄭᆞ가업
시ᄒᆞ엿시니ᄌᆞ못원억ᄒᆞ여이다ᄒᆞ거늘두션비ᄭᆡ성명
을부ᄅᆞ믐을듯고크게놀나이의ᄯᆞᆫᄒᆞᆫᄉᆞᆯ어빌어왈우
리등이ᄒᆞᆫ번붓ᄭᆞᆺ잘잘못둘녓ᄉᆞ오니원컨ᄃᆡ즉시고
치리이다ᄒᆞ고말을맛ᄎᆞ며그두분인이간ᄃᆡ업ᄂᆞᆫ지라
두션비이ᄆᆡ쥐집의도라가ᄆᆡ정신이황홀ᄒᆞ더니오
ᄅᆡ지아니ᄒᆞ여다죽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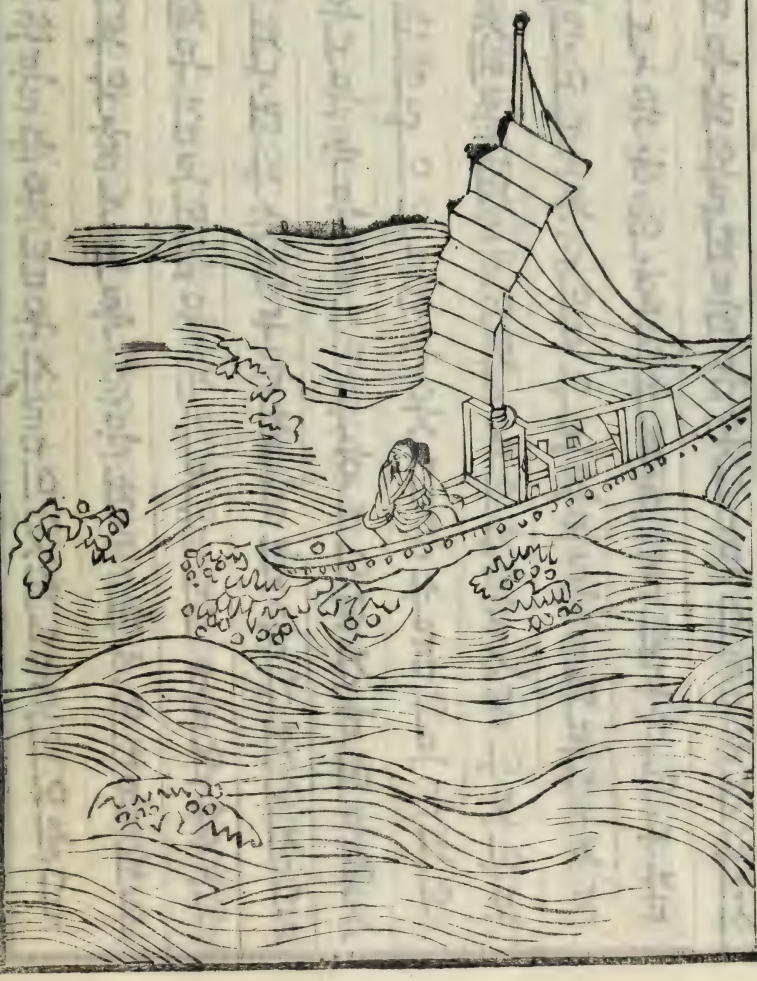
林鎬

林鎬莆田人爲工科給事時議開陜岱以通運載鎬奏罷之後以別事謫龍泉丞傷寒旣死而未殮鎬至一朱門中枷杻者不可勝數紫袍者索林鎬善惡簿鎬見天平內惡重善輕俄一突自空而下手擲黃卷於內善忽偏重乃諫罷役疏也於是聞主者呼云入獄者某某變牲者某某還魂者林鎬鬼使乃引鎬出鎬問紫袍者爲誰曰宋參政范仲淹也驚而寤

님호는포젼사름이라공과급스벼슬을ᄒᆞ엿더니ᄌᆡ의조졍의논이셤쥬ᄃᆡ쥬ᄉᆞ힌산과언덕을열어조운길을통ᄒᆞ랴ᄒᆞ실ᄉᆡ님회샹소ᄒᆞ야그ᄂᆡ일을간ᄒᆞ여말녀ᄃᆞ니그후뉴쳔승이되여맛ᄌᆞᆷ상한병으로죽은지라그혼이ᄎᆡᆼᄒᆞ여ᄒᆞᆫ불근칠ᄒᆞᆫ문으로드러가니그안ᄒᆡ갈ᄯᆞᆫ

지무슈ᄒᆞ고ᄯᅩ불근옷닙은사ᄅᆞᆷ이잇셔님호의어진닐
리록ᄒᆞᆫ문셔와악ᄒᆞᆫ닐리록ᄒᆞᆫ문셔를취ᄒᆞ여져울의다
니악ᄒᆞᆫ문셰무겁고어진문셰가ᄇᆞᆸ더니홀연ᄒᆞᆫ노인
이공중으로셔ᄂᆞ려와손의누른칙ᄒᆞᆫ권을가져어진닐
문셔편의노흐니문득무겁기비ᄂᆞᆫᄒᆞ니이ᄂᆞᆫ간ᄒᆞ여근역ᄌᆞ
를막은샹쇠러라이의ᄇᆞ리은옷닙은사ᄅᆞᆷ이모든죄인
을쳐결ᄒᆞᆯ시ᄌᆞ례로호명ᄒᆞ여왈오ᄂᆞ의갓오ᄅᆞᄌᆞᄂᆞᆫ아모아모
요즘싱으로ᄅᆞ터여ᄂᆞᆯᄌᆞᄂᆞᆫ아모아모요도로ᄉᆞᆯ녀보ᄂᆞᆯᄌᆞᄂᆞᆫ
님호라ᄒᆞ더니ᄌᆞ윽ᄒᆞ여ᄒᆞᆫ귀ᄉᆞ님호를인도ᄒᆞ여나갈
ᄉᆞ회ᄉᆞᄌᆞᄃᆞ려무러왈져ᄇᆞᆷ은옷닙은사ᄅᆞᆷ은ᄂᆡ뇨귀ᄉᆞ
답왈이ᄂᆞᆫ송나라참정범중엄이라ᄒᆞ더라회인ᄒᆞ
여놀나ᄭᅵ야회싱ᄒᆞ니라

劉元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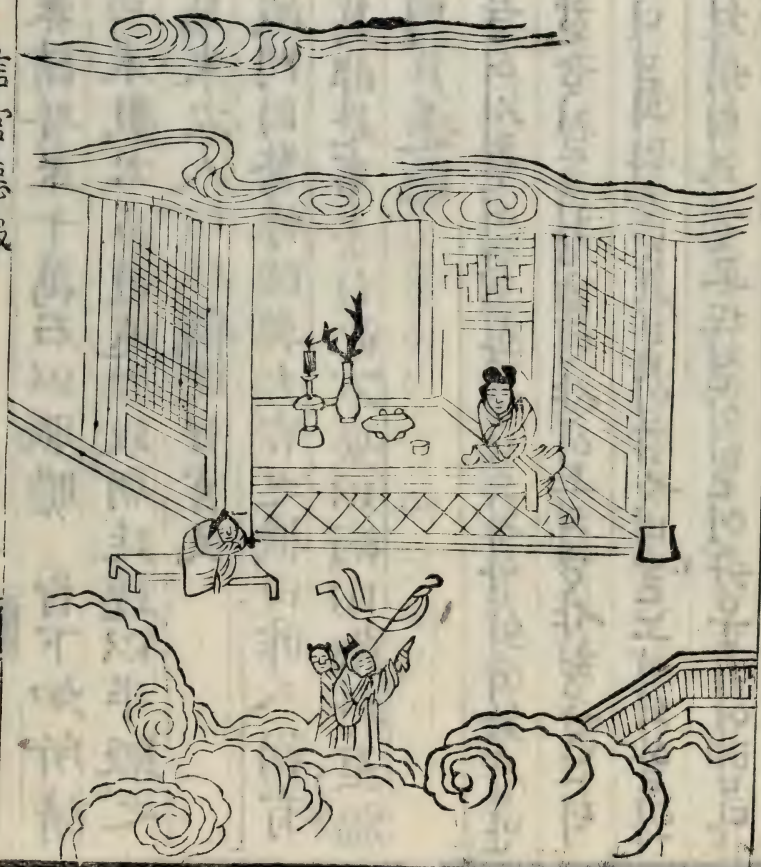


劉元昌字器之旣登第復從學每以漆雕開未能信斯爲歉及拜諫官公忠敢言累抗疏論章惇小人不可用人皆爲縮頸及惇用事公遂遠竄人言春循梅新與死爲鄰高賓雷化說著傳怕凡此八州公歷其七雖盛暑畏途泛海冒險監督者不少寬假人皆謂公必死而竟無恙時公貶所有一貲郎揣惇意欲徑殺公惇卽擢爲本路判官其人飛馭來去貶所纔二十里止明日將處公左右震懼夜半忽聞鐘聲貲郎如有物擊嘔血死矣

뉴원창의조는긔지니일죽등과ᄒᆞ고ᄃᆞ시ᄒᆞ기ᄆᆞᆷ을힘ᄡᆞ더니ᄆᆡᆺ간관이되ᄃᆡ공번되고ᄀᆞᆼ직되여발은말을감히ᄒᆞᆯ시여러번상소ᄒᆞ여장돈을소인이다ᄂᆞᆫ학ᄒᆞ니사ᄅᆞᆷ이모ᄃᆞ나ᄂᆞᆯ나고두리더라ᄆᆞᆺ장돈이용ᄉᆞᆫᄒᆞ여ᄃᆡ공이인ᄒᆞ여원지정ᄇᆡ

흘시현하쳬일악지는춘츄슌쥬미쥬신쥬고쥬두쥬뇌쥬
화쥬리이여럐고을의공이그일곱곳을겨그뒤비록성흔
더위와험흔길의보라흘라며장긔를무릅쓰고압녕흔
눈지조금도누그러오미업스리피경관계치아니흔터라이쉬
공의적소의흔부민이잇셔장돈의뜻을마초아공을즈
레쥭려흔니장돈이깃거그고을의판관을삼아쳐치케흔
니그 민이나는듯시공의적소를향흘시겨유이십니
음이 낫 니쳐날이적물민밤을리뉘고명일의장츳공
을겨뉘쳐흔갸흔니좌위라놀나고두리더니그밤의홀연
죵소리나며공중으로서부민을치는듯흔여급히쥭으니
이러므로공이면화흔니라

林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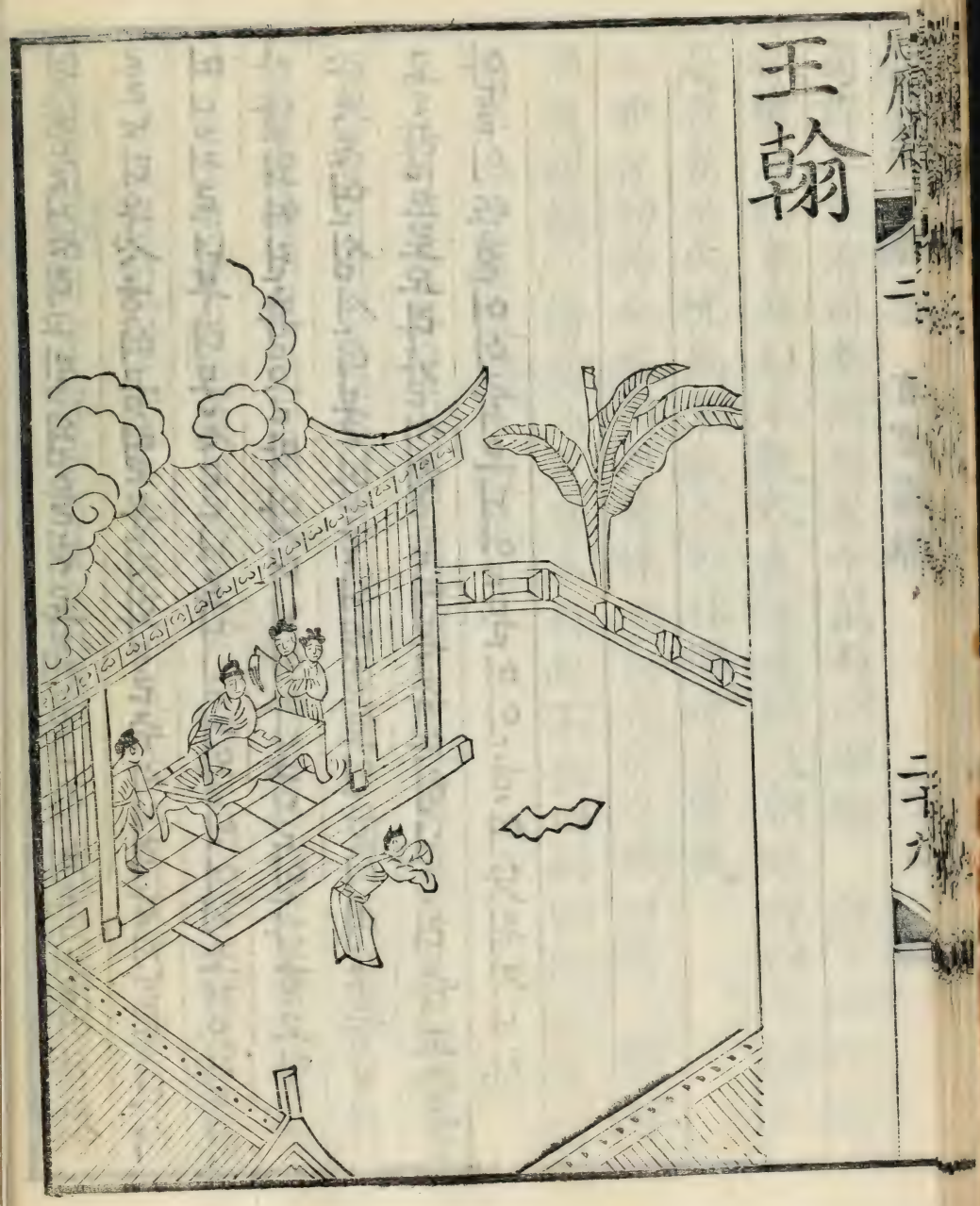


蜀郡旱荒有司奏請發米十萬石以賑贍 旨下如所請林機爲給事奏曰米數太多道遠難致朝廷遂以半賑之是夜妻王氏忱見朱衣人曰林機逆旨害民

上帝有勑特令滅門因驚悸醒與夫言之機曰昨入朝有阻穀賑饑之請莫非是事乎自此不安以病回鄉行至福州卒二子繼歿門戶遂絕

촉군이일즉가물어시절이흉황ᄒᆞ니유식알외여쓸십만석을보ᄂᆡ여ᄀᆡᆫ흘ᄒᆞ기를청ᄒᆞᆫᄃᆡ샹이도ᄎᆡᆨᄒᆞ샤청ᄒᆞᆫᄃᆡ로허ᄒᆞ여계시더니남긔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금ᄉᆞ벼슬ᄂᆞ이ᄉᆡ알외여ᄀᆞᆯ오ᄃᆡ곡식ᄉᆞᆨ쉬ᄃᆡ과ᄒᆞ고ᄯᆞᆫ길이멀어슈운ᄀᆡ어렴다ᄒᆞ니조정ᄋᆞᆫ말ᄂᆞ조ᄎᆞ그ᄉᆞᆫ를반감ᄒᆞ여ᄉᆞ더라이밤의그ᄎᆡ왕시ᄭᆞᆷ의ᄒᆞᆫ붉은옷ᄂᆞᆷ은사ᄅᆞᆷ이ᄂᆞᆯ너왈ᄂᆞᆷ긔ᄂᆞᆷ군

의 꼿을 거스리고 빅셩을 혹독게 ᄒᆞ니 상제 ᄃᆞᆨ벌이 ᄒᆞ지
를ᄂᆞ리우ᄉᆞ ᄒᆞ여곰 ᄯᆞᆯ문지화를 쥬시니라 ᄒᆞ건ᄃᆞᆯ나 ᄭᅵ
여 님금ᄭᅴ로 더부러 몽ᄉᆞ를 니르니 님금ᄭᅴ 왈 니 어제 조졍의 드러
가 알외여 ᄀᆞᆫ 흉을 막앗더니 이 아ᄂᆞᆫ 날인가 ᄒᆞ고 일노
조ᄎᆞ ᄌᆞ연 심신이 불안ᄒᆞ니 병으로 인ᄒᆞ여 ᄇᆡ슬을 보리
고 ᄉᆞ향으로 도라갈ᄉᆡ 힝ᄒᆞ여 복쥬ᄭᅳᆫ 히니 ᄅᆞ리 죽고 그ᄃᆞ
아들이 또ᄒᆞᆫ 이어 쥭으니 일문이 인ᄒᆞ여 ᄭᆞᆺ ᄎᆡᆨ지니라



王翰

明景泰中王翰爲御史上疏勸易儲與禁錮南城事甚切及英宗復位翰乃屢言二事之非上悅之許以大用一日上御便殿忽風飄一本於御前閱之則翰勸易儲及禁錮疏也急宣翰入示之稽顙出血遂伏誅此認恩推過之報也

명나라경뎡황제시절의왕한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어ᄉᆞ벼슬을ᄒᆞ여ᄉᆞ더니뎡ᄌᆞ밧고아ᄉᆡ우기와남셩의금고ᄒᆞᄂᆞᆫ날을ᄇᆞᆨ권ᄒᆞ여힝ᄒᆞᆯ시그말이심히간절ᄒᆞ니인ᄂᆞᆫ영죵의뎡ᄌᆞ를폐ᄒᆞ고ᄌᆞ쳐뎡ᄌᆞ를ᄉᆡᆼ우ᄌᆞ홈과영죵을남셩의가도자홈이니이두날은영죵이심히한ᄒᆞᄂᆞᆫ비라그후의영죵황제복위ᄒᆞ미또영죵의ᄯᆞᆺ을아당ᄒᆞ여ᄌᆞ로혀말ᄒᆞ되그두날이심히그르라ᄒᆞ여ᄌᆞ로말ᄒᆞ니샹

이긔특이넉이샤장찻크게쓰기로허락ᄒᆞ시니라일ᄏᆞ은상이
편편의어좌ᄒᆞ실시ᄒᆞ로연이글쓴조희ᄒᆞᆫ장이어편의떠
러지건ᄂᆞᆯ좌우로ᄒᆞ여곰집어오라ᄒᆞ샤뎌여보시니이곳왕
한의뒤ᄌᆞ밧고ᄂᆞᆫ날과ᄆᆞᆺ남셩의금고ᄒᆞᆫ날을녁권ᄒᆞᆫ
샹소초본이라급히왕한을불너드러오ᄆᆡ그글을뵈이시
니한이머리를조아피를흘니고청죄ᄒᆞ거ᄂᆞᆯ드ᄃᆞ여취
참ᄒᆞ니이ᄂᆞᆫ제은혜아닌거슬제은혜로라ᄒᆞ며죄죄를남
의게밀우ᄂᆞᆫ보응이러라

杜肅

武則天時禁天下屠殺拾遺張德生男私殺羊會同僚補闕杜肅懷以奏明日后謂德曰聞卿生男甚喜德拜謝后曰何從得肉德叩頭伏罪后曰朕禁屠宰吉凶不預自今召客亦須擇人出肅表示之肅大慙舉朝欲唾其面

무측텬셔의텬하의녕ᄒᆞ여ᄉᆞ양쥭이기ᄅᆞ금ᄒᆞ엿더니슐유벼ᄉᆞᆯᄒᆞᆫ장덕이아ᄃᆞᆯ을나ᄒᆞ미크게잔치ᄒᆞᆫ시ᄉᆞᄉᆞ로이양을잡고동료ᄅᆞᆯ쳥ᄒᆞ엿더니보궐벼ᄉᆞᆯᄒᆞᆫ두슉이잔치의참예ᄒᆞ엿다가양의고기ᄅᆞᆯ품어ᄃᆡ후ᄭᅴ알외니그이튼날ᄃᆡ휘장덕ᄃᆞ려ᄂᆞᆯ너왈ᄃᆞ르니경이싱ᄌᆞᄒᆞ다ᄒᆞ니심히깃부도다장덕이비샤ᄒᆞ건ᄃᆞᆯ휘쏘무러왈경이동료ᄅᆞᆯ모하잔치ᄅᆞᆯᄒᆞᆫ다ᄒᆞ니어ᄃᆡ로조ᄎᆞ고기ᄅᆞᆯ엇어잔치ᄒᆞ엿ᄂᆞ뇨ᄒᆞ시니

장덕이ᄀᆞ의ᄃᆡ후외알으심을알고황공ᄒᆞ여고두
청죄ᄒᆞ니ᄃᆡ혹ᄀᆞᆯ오샤ᄃᆡ리ᄆᆞ이ᄉᆞ도ᄅᆞᆯ금ᄒᆞ미다만무
고이쥭이믈금ᄒᆞ미요길흉ᄃᆡ수의ᄂᆞᆫ의논ᄒᆞᆯ비아니ᄀᆞ
굿ᄒᆞ여관계ᄒᆞ리오슈연이나ᄎᆞ후ᄂᆞᆫ릭을모ᄃᆞ미부
ᄃᆡ사ᄅᆞᆷ을갈히여청ᄒᆞᆯ지라ᄒᆞ시고ᄃᆞ여쥭의
표ᄅᆞ니여뵈시니쥭이크게붓그리고만조빅관이
다그얼굴의ᄎᆞᆷ을밧ᄉᆞ고겨ᄒᆞ더라

趙抃

昔趙抃帥蜀時有妓戴杏花色甚麗公偶戲曰髻上杏花眞有幸妓卽應曰枝頭梅子豈無媒至晚公使一老兵呼妓遲遲不至公忽厲聲自呼曰趙抃不得無禮急令人召回老兵老兵乃自幕後出曰某實未往某事相公最久相公邪徑分毫不染知今日之事不過一時此念便息耳

송나라 ᄉᆡ의 도변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ᄉᆡ련절도ᄉᆡ 되엿더니 그ᄉᆡ의 일흠난 기ᄉᆡᆼ ᄒᆞᆫ 나히 잇ᄉᆡ 머리의 힝화를 꼬ᄌᆞ시니 ᄉᆡᆨ ᄒᆡ 절승ᄒᆞᆫ지라 공이 우연이 희롱ᄒᆞ여 왈 계샹힝화 진유힉이라 ᄒᆞ니 이ᄂᆞᆫ 그ᄉᆡᆨ을 기려 희롱ᄒᆞᆷ이라 그 기ᄉᆡᆼ이 즉시 응셩ᄒᆡ 왈 지두ᄆᆡᄌᆞ 과무ᄆᆡ리오 ᄒᆞ니 이ᄂᆞᆫ 일노 증ᄆᆡᄒᆞ여 ᄉᆞᄉᆞ로 천거ᄒᆞᄂᆞᆫ 듯이라 공이 ᄆᆡᄒᆞ그ᄉᆡᆨ을 깃거ᄒᆞ고 또 그ᄌᆡ조를 ᄉᆞ랑ᄒᆞ여 이날 밤의 ᄒᆞᆫ 늙은 군ᄉᆞ로 ᄒᆞ여금 그 기ᄉᆡᆼ을 부를ᄉᆡ 냥구히 오지 아니

흐더니 공이 홀연이 크게소리 흐여왈 요변아 어이무례흐고
흐며 급히 사람을 보니여 그군사를 도로부르니 그군사 량막
뒤흐로 조츠 나아오며 글으되 니실 노가지 아니흐엿노라 흐거
늘 공이 그연고를 모르니 되왈 소인이 상공을 조츠 섬긴지오릭
지라 일즉 상공의 쥐 스흐심을 보오미 조곰도 그릇흐심이
업더니 오날 날이 괴연 일시를 넘지 아니흐여 그 성각이 그
치실줄을 아압는고로 짐즛 기드렷노이다 흐더라

姚思仁

秀水姚恩仁萬曆年間巡按山東河南誅殺頗多忽被攝至冥司羣鬼索命冥王詰曰爾爲御史何好殺如此姚曰某爲天子執法非好殺也王曰此言過矣凡爲官當體上天好生惡殺之心先王刑期無刑之意今爾不以哀矜勿喜自省理應受罪姚曰固也當兩省函荒某曾上疏請賑所活不下數千萬獨不可相準乎王曰此爾幕賓賀燦然之所爲也已註其中年富貴矣姚曰稿雖賀作疏由某上獨不可分其半乎王乃依言斥去羣鬼令其生還賀亦秀水人少年家貧從姚於宦因見函荒特作疏稿勸姚上請救饑者也賀四十後中進士累官冢宰姚亦官至工部尚書

수유신희요수인이라흐는사람이만력년간의어스벼슬

이되여산동과하라믈슌힉ᄋᆞ홀시ᄌᆞ못사름쥭이미만
핫허니홀연귀ᄉᆞ의게잡히여명부의ᄂᆡ르니무슈ᄒᆞᆫ귀신
이목숨을달나ᄒᆞ며ᄯᅩ념왕이힐문ᄒᆞ여왈네셰상의
잇셔엇지사름쥭이믈이ᄀᆞ치됴하ᄒᆞ뇨ᄉᆞ인이ᄃᆡ왈ᄂᆡ현
ᄌᆞ를위ᄒᆞ여집법음이오쥭이기를됴하음이아니로소이다
왕왈네말이그르다무릿ᄉᆞ관원이되ᄆᆡ맛당이샹현의
호싱지덕과션왕의형벌업신ᄒᆞᆫ뜻을본밧을거
시어ᄂᆞᆯ이ᄀᆡ너ᄂᆞᆫ사름을불샹이ᄂᆡ이ᄂᆞᆫ ᄆᆞ음으로ᄡᅥ경계
치아니ᄒᆞ니이맛당이죄를밧으라로다ᄉᆞ인왈그ᄂᆞᆫ진
실노그러타ᄒᆞ려니와싱각건ᄃᆡ기시흉년을당ᄒᆞ여냥
싱빅성이쥭기의ᄂᆡ르럿거ᄂᆞᆯ ᄂᆡ일즉상소ᄒᆞ여ᄃᆡ흉ᄅᆞᆯ
을청ᄒᆞ여ᄉᆞ시니슬온ᄇᆡ슈ᄒᆞᆫ만의ᄂᆞ리지아ᄂᆞᆫ지라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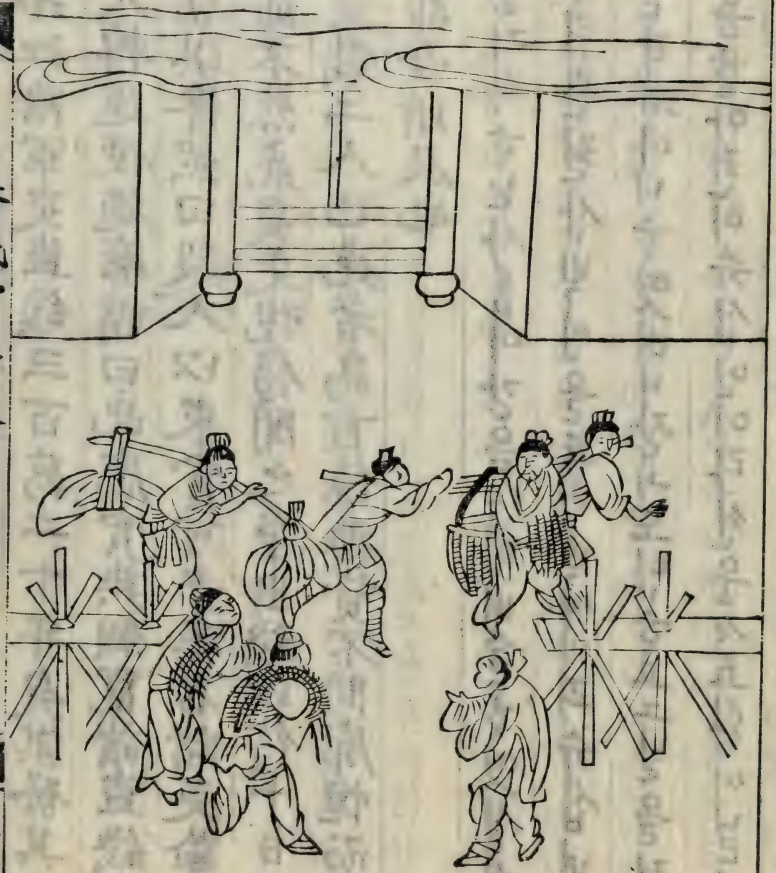
흘노이날노써샹젹지못흐리오왕왈이는네막하의잇
는하챤연의시긴빅라임의하챤연으로즁년부귀를흐
게흐엿시니녀는알은체흘빅아니로다ᄉᆞ인왈그샹소초
는비록하챤연의지은빅오나소를올녀쉉ᄉᆞ흐기는날노
말미암으미니그공을엇지졀반도난호지못흐리잇가
흐니왕이ᄉᆞ의그말을올히넉여모든귀신을물니티고
혼을도로ᄂᆡ여보ᄂᆡ니라하챤연도또흔수슈ᄭᅳ살믜이니
소시의집이빈한흐여요ᄉᆞ인을좃ᄎᆞ막즁의잇더니흉
황흔시졀을당흐여소초를ᄂᆡ고ᄉᆞ인을권흐여조졍의
청흐야거민을슬닌지려라하챤연이나히ᄉᆞ십후의
진ᄉᆞ흐여벼슬이홍졍의니르고요ᄉᆞ인이또흔벼슬이공
부상셔의니르럿더라

王珣

嘉靖時御史王珣巡按三吳舊例獲盜至三百人者陞四品俸珣部中所獲至數千人按之多非實公盡釋去曰我不敢爲官而陷人也任滿公陞左都御史後四子皆登進士

가정시의어스왕순이삼오시흘순찰흘시이석의국법이도적삼빅인을잡으면스품벼슬의오르는전네라이시왕순의부하의잡힌도적이슈천여인이라이믹스힉ᄀᆞ흐미날이만히상실흐여의미흔지무슈흔지라이의모라노하보ᄂᆡ여왈ᄂᆡ엇지벼슬을위흐여사람을상힉오리오흐더니그후공이과만흐여좌도어스로승품흐고쏘공의네아들이모ᄃᆞ진스급제흐엿ᄉᆞ더라

張淇



宋張淇知江陰軍吏盜錢三百萬二十年矣淇發其奸捕繫數十人轉運使趙廓謂曰此應賞典願竄諸盜錢吏吾以聞於朝淇慘然曰殺人以求賞可乎悉召諸吏諭以償錢則赦罪不然死矣吏親屬聞之爭出錢以償十日而足乃推同盜錢二人已死者爲首餘悉貸不問廓愧而歎曰公長者非吾所及也

송나라장긔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강음ᄯᅳᆫ히ᄇᆡᄉᆞᆯᄒᆞ엿실ᄉᆡ그ᄯᅳᆫ아젼의무리관젼삼ᄇᆡᆨ만을도ᄌᆡᆨᄒᆞ여이ᄆᆡ슈십년이넘어시되발각지아니ᄒᆞ여ᄃᆡ장긔도임ᄒᆞ고그날을ᄌᆡᆨ발ᄒᆞ니범용ᄒᆞᆫ아젼이슈십인이라젼운ᄉᆞ됴확이ᄂᆞᆯ너왈이게모든도ᄌᆡᆨᄒᆞᆫ아젼을ᄃᆞᆺ려죵죄를더으면ᄂᆡ맛당이ᄂᆞᆯ노ᄇᆡᆨ조정의알외리니ᄇᆡᆨᄉᆞ이죵ᄒᆞᆫ상젼을엇으리

라ᄒᆞᆫ거ᄂᆞᆯ장긔잠ᄒᆞᆨ히ᄭᆡᄃᆞ여왈엇지굿ᄒᆞ여사ᄅᆞᆷ을죽여상
을구ᄒᆞ리오ᄒᆞ고모든아젼을불ᄂᆡ효유ᄒᆞ여왈녀희관젼
을범용ᄒᆞ미ᄀᆞ죄당ᄉᆞ이죽을지라이ᄀᆡᆨ만일돈을드려여슈
히갑흘진ᄃᆡ니쏘ᄒᆞᆫ맛당이ᄀᆞ쇠ᄅᆞᆯ ᄉᆞᄒᆞ리라ᄒᆞ니모든아
젼의족속이ᄉᆞ말을듯고져마다돈을ᄂᆡ여드토아ᄇᆞ치니열
흘이ᄎᆞ지못ᄒᆞ여ᄀᆞ쉬이ᄆᆡ ᄎᆞᆺᄂᆞᆫ지라이의그무리중의이왕두
죽은사ᄅᆞᆷ으로ᄇᆡᆨ괴슈ᄅᆞᆯ지어죄ᄅᆞᆯ미루고그남은여러사ᄅᆞᆷ은모
다죄ᄅᆞᆯ ᄉᆞᄒᆞ여뭇지아니ᄒᆞ니ᄆᆞ효화이붓그러고탄복ᄒᆞ여왈
공은진ᄌᆞᆺ량ᄌᆡ라나의ᄆᆡᆺ츨ᄇᆡ아니라ᄒᆞ더라

曾櫻

天啓丙寅歲晉陵大旱自三月至五月不雨畊插未舉禾種焦枯民心惶惶時太守曾櫻號二雲潔己愛民祈禱甚虔延師築壇率縉紳士民晨夕叩禱天心不回公爲夜臥不寧忽忽若夢見神告曰明晨有德行老人鬚髮如雪進西門城邀以禱雨不應舉火焚之雨必足功只在其一傘耳公昧旦即遣人伺於郡西門果見老者鬚髮皓然延至事以隆禮懇代吏民請命於天老者竦然謝不敏公實以神明之命老人感公誠切願捐身力禱赴壇焚香告天誓不飲食自限三日不雨即赴火四圍積薪踰其壇老人竟日百拜次日腹枵力疲叩頭而已第三日寅刻忽生黑雲俄傾四合大雨盈尺萬民懽呼公拜酬老人問以平生積何功行一傘有何異處老人答曰愚民未諳詩書無所知

識但生年八十惟敬天地神明朔望節候必焚香叩拜所挾一傘遇出路便溺必張護身毋令穢觸三光耳公爲肅然增敬厚遺送歸老人姓羊名稔荆溪之北鄉人也

晉永和間一童子年七歲父母俱臥病童子夜就星月下悲啼懇禱爲父母祈壽如是經月不輟一夕父母夢神示曰汝夫妻數當盡賴有孝子爲爾增壽矣

현계병인셰의단능ᄉᆞ히크게가믈어삼월부터오월의니르히졈우도오지아니ᄒᆞ니능히밧갈아시므지못ᄒᆞ고이왕시문화셔ᄂᆞ라고마르ᄂᆞ지라민심이황ᄉᆞᄒᆞ여조셕을보젼치못ᄒᆞ듯ᄒᆞ더라ᄒᆡ슈중잉이몸가지오미결빅ᄒᆞ고빅셩을ᄉᆞ랑ᄒᆞ더니이러듯ᄒᆞ은한ᄌᆞ를보고졍셩을다ᄒᆞ여비ᄅᆞ밀셰도ᄉᆞ를ᄎᆞᆼᄒᆞ여ᄂᆞᆸ히단을ᄆᆞᄋᆞ고ᄉᆞ민을거ᄂᆞ려쥬야로

머리조아리도ᄒᆞᆫ되ᄃᆞᆫ심이두루혀심이업ᄂᆞᆫ지라공이밤을
당ᄒᆞ여심신이편ᄒᆞ지못ᄒᆞ더니홀연비몽ᄉᆞ몽간의신인이
ᄂᆞ려와ᄅᆞᆯ니일ᄉᆞ백의맛당이빅발노인이잇셔ᄒᆞᆫ우산
을가지고셔문을ᄯᆞ드려오ᄅᆞᆯ거ᄉᆞᆫ니공경도이ᄎᆞᆼᄒᆞ여비ᄅᆞᆯ빌
되효험이업거든불ᄂᆞ셔ᄉᆞᆯ오면비오기바ᄃᆞᆫ시ᄒᆞᆯ지니그
공덕이다만그우산의잇ᄂᆞᆫ니라ᄒᆞ거ᄂᆞᆯ놀나ᄉᆞᆫ여즉시사
름을보ᄂᆞ여셔문의기ᄂᆞ리더니과연ᄒᆞᆫ빅발노인이ᄂᆞ르
거ᄂᆞᆯ마자도라와후례로ᄉᆞᆫ리ᄀᆞᆸᄒᆞ고ᄀᆞᆫ절ᄒᆞ이빌어ᄀᆞ우
ᄒᆞ기ᄅᆞᆯ청ᄒᆞ니노인이황송ᄒᆞ여진조업ᄉᆞᆷ으로ᄉᆞᆫ양ᄒᆞ거
ᄂᆞᆯ공이신명의ᄅᆞᆫ치ᄆᆞᆯ고ᄒᆞᆫ되노인이공의정성을감동
ᄒᆞ여몸을ᄇᆞ리고힘을다ᄒᆞ여ᄀᆞ우ᄒᆞ기ᄅᆞᆯ허락ᄒᆞ고단의
올나향을피우고한ᄂᆞᆯ의고ᄒᆞ여비오기ᄀᆞᆫ의음식을먹

지아니려밍셰ᄒᆞ고삼일을빌어비오지아니ᄒᆞ면불의나
아가죽으리라ᄒᆞ여단을둘너셥흘쏫고날이맛도록빅
번이나절ᄒᆞ더니그이튼날은비곱프고근녁이피진ᄒᆞ
여다만머리를조을쌘이러니계삼일인시즈음의홀연ᄉᆞ
면의검은구름이닐며큰비붓드시오니거의ᄒᆞᆫ자이남은지
라만민이즐겨브르지ᄂᆞ며공이쏘ᄒᆞᆫ절ᄒᆞ여무슈이샤례ᄒᆞ
고인ᄒᆞ여무리왈금평싱의무ᄉᆞᆫ공력을이러ᄃᆞ시ᄯᆞᆫᄒᆞ시
며또져우산은무ᄉᆞᆫ귀이홈이잇ᄂᆞᆫ뇨노인왈싱은산촌우
민이라시셔를아지못ᄒᆞ고지식이업ᄉᆞ오나싱년팔십의오
직현지신명을공경ᄒᆞ여삭망과절일의반드시분향
ᄒᆞ비ᄒᆞ고가진바져우산은길의단닐졔오즘쏭을누려
ᄒᆞ면반드시베푸러몸을가리우ᄎᆞ러운긔운으로뵈일

일셩신씨씨이지아니게ᄒᆞ미라ᄒᆞ니공이더욱슉연이공경
ᄒᆞ고두터이쥬어보ᄂᆡ니라노인의셩은양이오명은념이니
형계북향사ᄅᆞᆷ이러라
ᄃᆡᆫ나라영화년간의ᄒᆞᆫ아희잇ᄉᆞᆫ나히칠셰라부뫼일시
의병들어누엇건ᄂᆞᆯ그아희밤마다ᄃᆞᆯ과ᄇᆞᆯ아ᄅᆡ나아가ᄀᆞᆯ
며부모의장슈ᄒᆞ기ᄅᆞᆯ빌어이러ᄃᆞ시ᄃᆞᆯ이넘도록그치지아ᄂᆡ
ᄒᆞ더니일ᄉᆞ은그부뫼ᄯᆞᆷ의신인이고ᄒᆞ여왈너희부쳬맛당
이쉐ᄃᆡᆫ흘ᄇᆡ어ᄂᆞᆯ네효ᄌᆞ의정셩으로인ᄒᆞ여슈ᄅᆞᆯ더은ᄂᆡ
라ᄒᆞ더니그후오ᄅᆡ지아니ᄒᆞ여병이낫고부ᄇᆡ장슈ᄒᆞ니라

楊詔

楊諧字公儀知滑州清正仁慈夜報河決諧恐害民躬率
官役往塞之正窮急間見一白髮老人舟載稭稈往來佐
助公大喜意是豪民水定天曉詢之不見
양예의 조는공의니의 인이졍졍인조흔지라 일즉화
쥬조ᄉᆞ로 ᄒᆞ여 ᄃᆡ니일ᄉᆞ은밤의 ᄃᆞ르니하쉬ᄃᆡ져 ᄒᆞ
다 ᄒᆞ거ᄂᆞᆯ 양예 빅성이 ᄒᆡ로올가 두려 즉시 관속을ᄃᆞ
리고 몸소나아가 ᄃᆡ진ᄌᆞ을 막을ᄉᆡ 물역이 업ᄉᆡ 졍히
의급ᄒᆞ ᄃᆡ니 홀연 ᄒᆞᆫ 빅발 노인이 잇ᄉᆡ 빈의 집을 ᄉᆡᆺ고
와ᄂᆡ ᄒᆞ며 막는지라 공이 크게 깃거 혜오ᄃᆡ 이 반ᄃᆞ시 빅성
중 호걸이라 ᄒᆞ여 ᄃᆡ니 이미 물을 막고 날이 ᄉᆡ ᄆᆡ그노
인을 ᄎᆞᄌᆞ니 ᄃᆞ시 보지 못ᄒᆞᆫ지라 이는 신인이 양예의 졍
성을 감동ᄒᆞ여 가마니 도음이러라

馬默

成武馬默知登州宋制沙門島罪人官給粮者三百人多
則取投海中默奏神宗言朝廷既貸其死今以溢額而投
海有傷皇恩乞查發配年久無過者移登州上納之著爲
令自此全活無算默無子一日正晝見絳幘雲帔者挾二
男女自天而下曰我奉天符以汝移沙門島罪人事俾續
其嗣俄乘雲去遂生男女二人皆聰慧默仕至都轉運使

송나라 마묵이라 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 등쥬고을원을 ᄒᆞ여ᄃᆡ
니 송나라 법의ᄉᆞ문도의 귀향보ᄂᆡᆫ죄인을 관가로냥식
쥬어먹이ᄂᆞᆫ 경쉬삼ᄇᆡᆨ인이라 그ᄉᆞ이 님으ᄆᆞᆫ 보다 ᄒᆡ ᄃᆡ
허쥭이ᄂᆞᆫ 젼례라 마묵이 신죵ᄭᆡ 알외여 왈조경이 임의
죄인의쥭기를 ᄆᆞᆫ ᄒᆞ여 챤ᄇᆡ ᄒᆞ여 ᄉᆞ거ᄂᆞᆯ이 게 그ᄉᆞ이 님기로 ᄇᆞ
다 ᄒᆡ ᄃᆡ 허쥭이 ᄆᆞᆫ 이ᄂᆞᆫ 형벌을 그릇 ᄒᆞᆷ이오 ᄯᅩᆫ ᄒᆞᆫ 황은

이손상ᄒᆞᆯ지니청권ᄃᆡ이후ᄂᆞᆫ즈셰히ᄉᆞ실ᄒᆞ여정빈ᄒᆞᆫ년
죄오ᄅᆡ고죄적ᄋᆞᆫ즈를갈히여등쥬로옴기미죠ᄒᆞᆯ가ᄒᆞᄂᆞ이다
ᄒᆞ니샹이허락ᄒᆞ샤인ᄒᆞ여벼법데를ᄉᆞᆷ으라ᄒᆞ시니일노부
터온전ᄒᆞ이ᄉᆞᆯ온지그쥬를아지못ᄒᆞᆯ너라마묵이일즉무즈
ᄒᆞ더니하로ᄂᆞᆫ빅쥬의ᄒᆞᆫ붉은관ᄊᆞᆫ선관이두아희남녀를
압희안고구름속으로ᄂᆞ려와마묵ᄃᆞ려ᄂᆞᆯ너왈ᄂᆡ하ᄂᆞᆯ의
명ᄒᆞ신문셔를밧ᄌᆞ와시니ᄂᆞᆯ너시되네일즉ᄉᆞ문도죄인을
죽지아니케ᄒᆞ여시ᄆᆡ그음덕으로ᄇᆡ즈손을잇게ᄒᆞ라ᄒᆞ시니
이러므로두아희로쥬노라ᄒᆞ고말을마ᄎᆞᆫ미구름을타고도
라가더니그후과연아ᄃᆞᆯ과ᄯᆞᆯ을나흐니다총명영오ᄒᆞ
고마묵이또ᄒᆞᆫ벼ᄉᆞᆯ이도젼운ᄉᆞ의니르ᄅᆞ더라

袁了凡

袁了凡自述余童年喪父老母命棄業而學醫謂可以養生可以濟人且一藝以成名爾父夙心也後余在慈雲寺遇一老者修髯偉貌飄飄若仙余敬禮之語余曰子仕路中人也明年即進學矣何不讀書余告以故曰吾姓孔雲南人也得邵子皇極數正傳數該傳汝予引之歸試其數纖悉皆驗余遂起讀書念孔爲予起數縣考童生當四十名府考七十一名提學考第九名明年赴考三處名數皆合復爲卜終身休咎言某年當補廩某年當貢貢後某年當選四川一大尹在任二年半即宜告歸五十三歲八月十四日丑時當終於正寢惜無子余備錄而謹記之自此以後凡遇考校其名數先後皆不出孔公所懸定者獨算余食廩米九十一石五斗當出貢及食米七十餘石屠宗

師即批准補貢余竊疑之後果爲署印楊公所駁直至丁卯年始准貢連前食米計之實九十一石五斗也余因此益信進退有命澹然無求矣貢入燕都留京一年歸遊南雍未入監先訪雲谷會禪師於棲霞山中對坐一室凡三晝夜不瞑目雲谷問曰凡人所以不得作聖者只爲妄念相纏耳汝坐三日不見起一妄念余曰吾爲孔先生算定榮辱死生皆有定數即要妄想亦無可妄想雲谷笑曰我待汝是豪傑原來只是凡夫問其故曰人生安得無數但惟凡人有數極善之人數固拘他不得極惡之人數亦拘他不得汝二十年來被他算定不曾動轉一毫豈不是凡夫余曰然則數可逃乎曰命自我作福自己求詩書所稱的爲明訓我教典中說求功名得功名求富貴得富貴求

男女得男女求長壽得長壽夫妄語乃釋迦大戒諸佛菩薩豈誑語欺人余進曰孟子言求則得之是求在我者也道德仁義可以力求功名富貴如何求得雲谷曰孟子之言不錯汝自錯解了六祖說一切福田不離方寸從心而覺感無不通求在我不獨得道德仁義亦得功名富貴內外雙得是求有益於得也若不返躬內省而徒向外馳求則求之有道得之有命矣內外雙失故無益因問孔公算汝終身若何余以實告雲谷曰汝自揣應得科第否應生子否余追省良久曰不應也科第中人類有福相余福薄又不能積功累行以基厚福兼不耐煩劇不能容人時或以才智蓋人直心直行輕言妄談凡此皆薄福之相也豈宜科第哉地之藏者多生物水之清者常無魚余好潔和

氣能育萬物余善怒愛爲生生之本忍爲不育之根余務惜名節常不能舍已救人又多言耗氣喜飲爍精好徹夜長坐而不知葆元毓神皆宜無子其餘過惡尚多不能悉數雲谷曰豈惟科第哉世間享千金之產者定是千金人物享百金之產者定是百金人物應餓死者定是餓死人物天不過因材而篤幾曾加纖毫意思卽如生子有百世之德者定有百世子孫保之有十世之德者定有十世子孫保之有三世二世之德者定有三世二世子孫保之其斬焉無後者德至薄也汝今既知非將向來不發科第不生子之相盡情改刷務要積德務要包荒務要和愛務要惜精神從前種種譬如昨日死從後種種譬如今日生此義理再生之身也夫骨肉之身尚然有數義理之身豈不

能格天余信其言拜而受教因將往日之罪從今盡情發露爲疏一通先求登科誓行善事三千條以報天地祖宗之德雲谷出功過格示余令所行之事逐日登記善則記數惡則退除且教持準提呪以期必驗余初號學海是日改號了凡蓋悟立命之說而欲不落凡夫窠臼也從此而後終日兢兢便覺與前不同前日只是悠悠放任到此自有戰兢惕勵景象若在暗室屋漏中常恐得罪天地鬼神遇人憎我毀我自能恬然容受到明年赴部考科舉孔先生算該第二忽考第一其言不驗而秋闈中式矣然行義未純撿身多誤或見善而行之不勇或救人而心常自疑或自勉爲善而口有過言或醒時操持而醉後放逸以過折功日常虛度自己巳歲發願直至己卯歲歷十餘年而

三千善事始完時方有事入關庚辰南還始及回向遂起求子願亦許行三千善事辛巳生汝天啓余行一事隨以筆記汝母不能書每行一事輒用鵝毛管印一紅圈於曆日之上或施貧人或放生命一日有多至十餘圈者至癸未八月三千之數已滿九月十三日復起求中進士願許行善事一萬條丙戌登第授寶坻知縣余置空格一冊名曰治心篇晨起坐堂家人攜付門役置案上所行善惡纖悉必記夜則設卓於庭效趙閱道焚香告帝汝母見所行不多輒頻蹙曰我前在家相助爲善故三千之數得完今計一萬衙中無事可行何時得圓滿乎夜間偶夢見一神人余言善事難完之故神曰只減粮一節萬行俱完矣蓋寶坻之田每畝二分三釐七毫余爲區處減至一分四釐

六毫委有此事心頗疑惑適幻余禪師自五臺來余以夢告之且問此事宜信否師曰此心眞切即一行可當萬善況合縣減粮萬民受福乎吾即捐俸銀令其就五臺山齋僧一萬而回向之孔氏算余五十三歲有厄余未嘗祈壽是歲竟無恙今六十九矣汝之命未知若何即命當榮顯常作落莫想即時當順利常作拂逆想即現頗足食常作貧窶想即人相愛敬常作恐懼想即家世望重常作卑下想即學問頗優常作淺陋想遠思揚祖之德近思蓋父之愆上思報國之恩下思造家之福外思濟人之急內思閑己之邪日日知非日日改過一日不知非即一日安於自是一日無過可改即一日無步可進天下聰明俊秀不少所以德不加修業不加廣者只爲因循二字擔閣一生雲

谷禪師所授立命之說乃至精至邃至中至正之理其熟
玩而勉行之毋自曠也

원교범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ᄉᆞᄉᆞ로평생날을긔록ᄒᆞ여그아
ᄃᆞᆯ을경계ᄒᆞ니기셔의ᄀᆞᆺ시되ᄂᆞ어려셔엄친을녀희고노
ᄆᆡ날을명ᄒᆞ여ᄒᆞ업을ᄇᆞ리고의슐을ᄇᆡᆫ호라ᄒᆞ시며
ᄯᅩ니ᄅᆞ샤ᄃᆡ의슐을졍히ᄒᆞ면가히양생도ᄒᆞᆯ거시오ᄯᅩ가
히사ᄅᆞᆷ의쥭으ᄆᆞᆯ건질거시오ᄯᅩᄒᆞᆫ사ᄅᆞᆷ이ᄒᆞᆫ가지조의도
ᄅᆞᆯ니ᄅᆞ워일흠을나라ᄂᆞ오미ᄂᆡ부친의원ᄒᆞᄂᆞᆫ ᄆᆞ음이라
ᄒᆞ시건ᄅᆞᄂᆞ조운ᄉᆞ의ᄋᆞᆺ셔의슐을공부ᄒᆞ더니마ᄎᆞᆷᄒᆞᆫ노
인을만나니ᄯᅩᄒᆞᆫ슈염과아ᄅᆞᆷᄃᆞ운용ᄆᆡ표ᄉᆞᄒᆞ여신션의
풍치ᄋᆞᆺᄂᆞᆫ지라날ᄃᆞ려ᄂᆞᆯ너와ᄅᆞᆯ그ᄃᆡᄂᆞᆫ버슬길의ᄋᆞᆺᄂᆞᆫ사ᄅᆞᆷ
이라ᄂᆞ년의ᄒᆞᆨ교의나아갈거시어ᄂᆞᆯ엇지글ᄂᆞᆯ지아니ᄒᆞᄂᆞᆫ뇨

ᄒᆞ거ᄂᆞᆯᄂᆡ소유ᄅᆞᆯ고ᄒᆞ고ᄉᆞᆼ명을물으니션ᄉᆡᆼ이ᄅᆞᆯ오ᄃᆡ나의ᄉᆡᆼ은공이니운남ᄉᆞ사ᄅᆞᆷ이라일즉소강ᄭᆞᆯ의황극슈법을어ᄃᆞᆺ더니이제그ᄉᆡ맛ᄃᆞᆼ이ᄌᆞ의게ᄀᆞᆫᄒᆞ리라ᄒᆞ거ᄂᆞᆯᄂᆡ인ᄒᆞ여ᄋᆡᆺ쇼러도라와그슈법을시험ᄒᆞ니ᄉᆡᆫᄒᆞ날이다맛ᄂᆞᆫ지라ᄂᆡ드ᄃᆞ여글ᄂᆡ리을ᄉᆡᆼ각을ᄂᆡ일ᄉᆡ공션ᄉᆡᆼ이또날을위ᄒᆞ여과슈ᄅᆞᆯ풀어보니ᄎᆞᆨ음본읍ᄉᆡ취의ᄂᆞᆫ일흠ᄎᆞ례ᄉᆞ십지로ᄉᆡᆫ히고본ᄒᆞᆨ시취의ᄂᆞᆫ아홉지로ᄉᆡᆫ히리라ᄒᆞ더니ᄆᆡᆺ명년의삼ᄌᆞ응시호ᄆᆡ그일흠ᄎᆞ례모다여함부ᄭᆞᆯ이라ᄃᆞ시죵신길흉을점복ᄒᆞ니ᄂᆞᆯ너시되아모ᄒᆡ의향교의들고늠미구십일셕오두ᄅᆞᆯ먹은후아무ᄒᆡ의공ᄉᆡᆼ이되여경ᄉᆞ로가고그후아모ᄒᆡ의벼슬ᄒᆞ여ᄉᆞ천ᄇᆞ의ᄒᆞᆫ고을원을ᄒᆞ고임소의ᄋᆡᆺ손지두ᄒᆡ반의과

만흐여오고오십삼세되던히팔월십스일츅시의맛당
이정김의셔쥭을지니평싱의급제흐지못흐고또흐
무ᄌᆞ흐리라흐건ᄂᆞᆯ너ᄌᆞ초긔록흐여ᄎᆞ례로상고흐니그후
로ᄆᆡ양시취의일흠ᄌᆞ례와ᄎᆞᆷ방흐던죄모라공션싱의
정흔바슈의버셔나지아니흐되다만늠미구십일셕오
두ᄅᆞᆯ먹은후의공싱이되리라흐던말이맛지아니흐여겨
유쳔십여셩을먹은셕의공싱을보흐여ᄉᆞᆫ지라ᄂᆞᆫ고ᄋᆞ이의
심흐더니그후과연사ᄅᆞᆷ의ᄃᆞᆫ박흔비되여공싱의보ᄅᆡ무ᄉᆞ흐
고금우정묘년의ᄂᆞᆯ러비로소공싱의보흐니그제야늠미
ᄋᆞᆫ쉬전후합흐여구십일셕오두라이러므로더욱진퇴
의ᄆᆡᆼ이잇다흐여ᄃᆞ시구흐ᄂᆞᆫ비어ᄇᆞᆫ지라기시의공싱으
로경ᄉᆞ의ᄃᆞ러가머무ᄅᆞᆫ지일년만의남으로도라갈시

마침운곡선생을초청셔하산중의셔만난지라흔방의디좌흔
여삼쥬야를리닐시니건동이람연흔야마치무심흔사람ᄀᆞᆺ
흐니운곡이무러왈리져범인이셩인지경의니르지못흔은반ᄃᆞ
ᄃᆞ만망녕된싱각이셔로얼키미라이게그러ᄒᆞᆫ사흘을안졈시
되망녕된싱각나믈일호도못보리로다흔거ᄃᆞᆯ니공션싱의
슈로써고흔여왈영욕과ᄉᆞ싱이졍흔쉬잇스니망샹을ᄂᆞ
여도쓸ᄃᆡ업ᄉᆞᆫ지니이러므로동심티아니흔엿심이라흔니
운곡이ᄂᆡ말을듯고우셔왈ᄂᆡ너를아로미호걸의사람인
가흔엿더니진즛흔낫범부로다흔거ᄃᆞᆯ니그연고를므르니운
곡왈사람이엇지졍흔쉬업ᄉᆞ리오만은오직범인의게쉬
잇ᄂᆞ니극히어진사람은슈와팔지감히구속지못흔고극히
ᄉᆞ오나온사람도또흔구속지못흔ᄂᆞ니내이십년ᄉᆞ이의려

공션싱의졍슈만밋고조곰도동념ᄒᆡ아니ᄒᆞ니엇지범ᄇᆡ
아니리오ᄒᆞ건ᄂᆞᆯ니ᄯᅩ무러왈그리ᄒᆞ면슈ᄅᆞᆯ가히도망ᄒᆞ리
잇가ᄒᆞ니션시왈명과복이무비조작이니ᄏᆡᆺ글의날은
말이심히분명ᄒᆞ지라우리불가설법의ᄅᆞ와ᄉᆞ시되공명
을구ᄒᆞ면공명을엇고부귀ᄅᆞᆯ구ᄒᆞ면부귀ᄅᆞᆯ엇고ᄌᆞ
식을구ᄒᆞ면ᄌᆞ식을엇고장슈ᄅᆞᆯ구ᄒᆞ면장슈ᄅᆞᆯ엇
으리라ᄒᆞ엿시니ᄃᆡ저망녕된말은셕가의큰경계시니
제불보살이엇지망녕된거짓말노사ᄅᆞᆷ을속이시리요
ᄒᆞ거ᄂᆞᆯ니ᄯᅩᄅᆞ오ᄃᆡ밍지니ᄅᆞ사되구ᄒᆞᆫ즉엇ᄂᆞᆫ다ᄒᆞ시니이
ᄂᆞᆫ그몸의잇ᄂᆞᆫ거ᄉᆞᆯ니ᄅᆞ시미니인의와도덕은가히힘으로
구ᄒᆞ여엇으려니와공명과부귀ᄂᆞᆫ남의게잇ᄂᆞᆫ비니엇지
임의로구ᄒᆞ여엇으리오ᄒᆞ니운곡왈밍ᄌᆞ의말ᄉᆞᆷ이그ᄅᆞ지

아니커늘네스스로그릇힌셕ᄒᆞ엿도다각조의말ᄉᆞᆷ의날닷
시되모든복이그ᄆᆞ음을ᄯᅥ나지아니ᄒᆞ니ᄆᆞ음을조ᄎᆞ셔드르
ᄆᆡ감동ᄒᆞ여통히아날거시업다ᄒᆞ시니만일ᄆᆞ음을닷가
구ᄒᆞ면엇지ᄒᆞᆫᄀᆞᆺ도덕인의ᄲᅳᆫ이리오ᄯᅩᄒᆞᆫ공명부귀도엇
을지니ᄂᆞ른바ᄂᆡ외쌍득이요만일몸을두루혀안ᄒᆞ로
슈힝ᄒᆡ아니ᄒᆞ고다만것ᄉᆞ로구ᄒᆞᆫ즉이ᄂᆡ른바ᄂᆡ외로쌍
실홈이라ᄒᆞ고인ᄒᆞ여무러왈공션싱이ᄂᆡ의죵신을
졈ᄒᆞ여ᄉᆞ시ᄆᆡ그쉬엇더ᄒᆞ더뇨ᄒᆞ거ᄂᆞᆯᄂᆡ실노ᄭᅵᆫ고ᄒᆞ니운곡
왈네스스로혜아리건ᄃᆡ가히급ᄭᅵᆫᄒᆞ염즉ᄒᆞ며ᄯᅩ가히아
ᄃᆞᆯ을나흠즉ᄒᆞ냐ᄒᆞ거ᄂᆞᆯᄂᆡ오리싱각ᄒᆞ다가ᄅᆞ오ᄃᆡ등
과ᄒᆞ는사ᄅᆞᆷ은ᄃᆡ져복샹이잇거ᄂᆞᆯ나는복이박ᄒᆞ고ᄯᅩᄒᆞᆫ
공과덕을ᄲᅳᆺ하보ᄀᆞ을두려이지못ᄒᆞ고겸ᄒᆞ여번요홈

을견디지못ᄒᆞ여사람을용납지아니ᄒᆞ고혹지조와지혜로써사람을답누르며ᄆᆞ음이공ᄒᆞ며힝실이착ᄒᆞ체ᄒᆞ야사람을망녕되이말ᄒᆞ여가ᄇᆞ야이의논ᄒᆞ니인ᄂᆞ모도복의힘로운널이라엇지과거ᄒᆞ염즉ᄒᆞ며또ᄉᆞ히걸어야초목이무성ᄒᆞ고물이맑으면고기업다ᄒᆞ거ᄂᆞ른그러리아니ᄒᆞ여정결ᄒᆞ기를도하ᄒᆞ며공군이화ᄒᆞ여야능히만물을양육ᄒᆞ다ᄒᆞ거ᄂᆞ른그러리아니ᄒᆞ며ᄆᆞ양성ᄂᆞ기를도하ᄒᆞ며조의ᄒᆞ는ᄆᆞ음은성휵ᄒᆞ는근본이요잔인ᄒᆞ는ᄆᆞ음은성휵지못ᄒᆞ을장본이어ᄂᆞ른그러리아니ᄒᆞ여능히ᄂᆞ거ᄉᆞ로ᄂᆞ여사람을구제ᄒᆞ지못ᄒᆞ며또언어를만히ᄒᆞ여귀운을모손ᄒᆞ고슬을도하ᄒᆞ여정신을소삭게ᄒᆞ고또밤을ᄉᆞ와안졋기를도하ᄒᆞ여원귀를보젼ᄒᆞ지아니ᄒᆞ니

이는 맛당이무지흘귀샹이요그나믄과악이오히려허다ㅎ
여니로혜지못ㅎ노라ㅎ니운곡왈이날은다만과거와지
식만의논ㅎ는비아니라세샹의천금가샨을진일자는일정
정천금이쓴인물이오빅금가샨을진일자는일정빅
금이쓴인물이오굴머쥭을자는일정굴머쥭을만ㅎ
인물이니하늘이불과졔인물을쓰라식이실뿐이라
엇지일ㅎ나다른의시잇스시리요또지식낫키로의논권
ㄷ빅ㄷ를누릴ㄷ이잇는자는일정빅ㄷ의조손이잇
셔집을보젼ㅎ는거시오열ㄷ를누릴ㄷ이잇는자는열ㄷ의
조손이잇셔집을보젼ㅎ는거시오슈삼ㄷ를누릴ㄷ이잇는
자는슈삼ㄷ의조손이잇셔집을보젼ㅎ는거시오그릇쳐적무
후ㅎ는자는ㄷ이지극히박ㅎ한사람이라네이믹글음을알앗

시니이제로부터이젼과거못ᄒᆞᆯ샹을곳쳐과거ᄒᆞᆯ긔샹을만
들며무ᄌᆞᄒᆞᆯ샹을고쳐유ᄌᆞᄒᆞᆯ긔샹을만들지니이는네ᄆᆞ
음을고쳐힝ᄒᆞ기의잇ᄂᆞᆫ비니이후로ᄂᆞᆫ이젼ᄂᆡᆯ을두루혀
부ᄃᆡ적ᄃᆡᆨᄒᆞ기ᄅᆞᆯ힘ᄊᆞ며정신을앗겨망녕되이허비ᄃᆡ
아니ᄆᆞᆯ힘ᄊᆞᆯ지니이젼의죵ᄌᆞ그ᄅᆞᄌᆞᆫ날은어제쥭은사ᄅᆞᆷ
으로아라젼ᄉᆡᆼ으로부치고이후ᄉᆞᄂᆞᆫ오ᄂᆞᆯ시로이ᄅᆞᆫ셩ᄒᆞᆫ
사ᄅᆞᆷ으로아라온갓ᄂᆞᆯ을다어질게힝ᄒᆞ면이ᄂᆞᆫ의리의몸
으로ᄌᆡ셩ᄒᆞᆫ혐이니이의리의몸으로ᄭᅥ엇지한ᄂᆞᆯ을도로
혀지ᄆᆞᆺᄒᆞ리요ᄒᆞ거ᄂᆞᆯ니크게ᄭᅵ두라그말을신힝ᄒᆞᆯ시인
ᄒᆞ여젼일의지은허물을ᄆᆞ음ᄭᅳᆺ드러ᄂᆡ여ᄂᆞᆺ치고치며또
글을올녀하ᄂᆞᆯ씌고ᄒᆞ여ᄆᆞᆫ쥐등과ᄒᆞ기ᄅᆞᆯ구ᄒᆞᆯ시작ᄒᆞᆫ날
삼천가지ᄅᆞᆯ힝ᄒᆞ여뎐지조죵의ᄃᆡᆨ갑기ᄅᆞᆯ밍씨ᄒᆞ니

우곡이또공과격이라ᄒᆞᆫ칙을ᄂᆡ여날을쥬고날노ᄒᆞ
여금ᄆᆡ일힝ᄒᆞᆫ바를낫ᄀᆞ치ᄀᆞ로ᄃᆞ을ᄉᆡ착ᄒᆞᆫ날인즉
쥬ᄒᆞ나ᄒᆞᆯ두고악ᄒᆞᆫ날인즉쥬ᄒᆞ나ᄒᆞᆯ덜어쥬ᄋᆡ다과
ᄅᆞᆯ계교ᄒᆞ게ᄒᆞ며또ᄌᆞᆫ제진언을ᄀᆞᆯᄋᆞ, 쳐그녕험을밧게
ᄒᆞ니이후로죵일ᄀᆞᆼᄀᆞᆼᄒᆞ여더욱권과ᄌᆞ지아니믈ᄉᆡᆫ듯ᄂᆞᆫ
지라ᄌᆞ연작념ᄒᆞ고가다듬아어둔집ᄉᆞ과은근ᄒᆞᆫ뒤잇
ᄉᆡ도ᄉᆞᄉᆞ로ᄃᆞᆫ지귀신ᄉᆡ죄를엇을가두려ᄒᆞ며사람이날을
ᄆᆡ워ᄒᆞ거나날을훼방ᄒᆞᆷ을만나도ᄂᆞᆫ히용납ᄒᆞ여밧
ᄂᆞᆫ지라명년의니르러ᄒᆞ교의나아가응시ᄒᆞ니공선ᄉᆡᆼ의
슈의ᄂᆞᆫ둘ᄌᆡ로ᄉᆡᆫ히리라ᄒᆞ엿더니지금의홀연이ᄭᆡ일ᄂᆞ
ᄉᆡᆫ, 현시니그말이ᄀᆞᆺ의맛지아니ᄒᆞ, 미오또가을회시의입격
ᄒᆞ니이ᄂᆞᆫ공선ᄉᆡᆼ의슈의엄ᄂᆞᆫ비라이러므로더욱ᄆᆡᆺ어ᄆᆡ

음가지오미동ㅅ촉ㅅ호나오히려의로힝호오미슌실치못
호며몸을듯그미글오미만흔지라혹착호날을보아도
힝흐미이날ㄴ지못호며혹사름을구제호여도믄음의상
히ㅈ져호고혹ㅈ스로힘써착호날을호노라호다가임으
로ㄴ글은말을만히호며혹선셩의ㄴ죠심호다가취호
후의방탕호기도호여죵ㅅ이러ㄷ호허물이착호날을
감호미취송호ㄴ날이만흔지라이러므로착호날이쉬ㅈ
지못호여ㄱ스년으로부터발원호여ㅅ으려ㄱ묘년의ㄴ르
러삼천가지착호날이비로소완젼호지라그후경진년의
ㄷ시아ㄷ구호ㄹ믄음을ㄴ여또삼천가지착호날을발원호
여ㅅ더ㄴ신ㅅ년의ㄴ르ㄹ나흔지라기시의삼천가지날을힝
호ㄹ적의ㄷ호가지식힝호ㄴ ㄷ로즉시리로ㄱ호고ㄴ의모진은

글을모로므로다만붓두겁의붉은것슬칠ᄒᆞ여척벽
일조우희씩으니호가난ᄒᆞᆫ사ᄅᆞᆷ을구제도ᄒᆞ며혹시즘
승도슬녀보ᄒᆞ니일ᄌᆞ지ᄂᆡ의혹열번이더ᄒᆞᆫ력이잇서
시니계미년팔월의ᄂᆞᆯ러이ᄆᆡ삼천가지착ᄒᆞᆫ날이찻ᄂᆞᆫ
지라구월십삼일부터또진ᄉᆞ급제ᄒᆞᆯ원을날희여또일
만가지착ᄒᆞᆫ날을발원ᄒᆞᆯ시벽ᄉᆞᆯ녀ᄉᆞᆫ의ᄂᆞᆯ러과연급
제ᄒᆞ고보젹ᄉᆞᆫ히지현을ᄒᆞ여ᄉᆞ실ᄉᆡ니공칙ᄒᆞᆫ권을가져
일흠ᄒᆞ되치삼편이라ᄒᆞ고ᄉᆞ벽의ᄂᆞᆯ어나공ᄉᆞ를블서
ᄉᆡᆫ악간의힝ᄒᆞᆫ날을ᄉᆡᆨᄉᆞ이긔록ᄒᆞ고밤이면상탁
을ᄯᆞᆯ의버리고향으로피ᄒᆞᆫᄂᆞᆯ라고ᄒᆞ더니ᄂᆡ의모친이보
고문득얼골을찡긔여왈우리ᄌᆞᆫ의집의이슬리의
ᄂᆞᆫ서로도아착ᄒᆞᆫ날을ᄒᆞ기로삼천가지슈화오리지

아니ᄒᆞ여ᄎᆞᆺ거니와 이게ᄂᆞᆫ발원ᄒᆞᆫ쉬일만가지오 또아즁
의힝ᄒᆞᆫ날이어ᄇᆞᆫ지라 어나ᄭᅳᆺ의그슈를치오르고ᄒᆞ여셔로
근심ᄒᆞ더니일ᄉᆞ은ᄂᆡ쇼ᄆᆞᆷ의신인을만나일만가지착ᄒᆞᆫ
날의치오기어려옴을말ᄒᆞ니그신인이왈굿ᄒᆞ여만가지를
길리지아니ᄒᆞ여다만빅셩의구실감ᄒᆞᆫ날이족히일
만가지착ᄒᆞᆫ날을당ᄒᆞ리라ᄒᆞ니이ᄂᆞᆫ보젹현의젼답
구실이ᄒᆞᆫ니랑의두푼삼ᄂᆡ칠호찍ᄒᆞᆫ법이어늘ᄂᆡ
도임후의그슈를감ᄒᆞ여ᄒᆞᆫ푼ᄉᆞ리ᄀᆞᆨ호찍으로졍ᄒᆞ여ᄋᆞᆺ
더니이날을ᄂᆡ름이라심즁의ᄌᆞ못신인의과장ᄒᆞᆷ을의
혹ᄒᆞ더니마조아운곡셔ᄉᆞ오ᄃᆡ산으로조ᄎᆞ오거ᄂᆞᆯᄂᆡ쇼ᄆᆞᆷ
말을고ᄒᆞ여왈이날이맛당이ᄆᆞᆺ염즉ᄒᆞ냐ᄒᆞ니셔ᄉᆞ왈
이ᄆᆞᆷ이진실노지극ᄒᆞᆫ셔심이라만민이덕을밧아ᄉᆞ니

다만 이ᄒᆞᆫ날이가히만가지를당ᄒᆞ리라ᄒᆞ거늘인ᄒᆞ여
과황을ᄂᆡ여ᄒᆞ여금오ᄃᆡ산의나아가중의무리일만을지ᄒᆞ
여먹이게ᄒᆞ니라또공선생의슈의ᄂᆡ른바오십삼세의중으리라
호미ᄂᆡ그ᄒᆡ의일즉귀도ᄒᆞᆫ비업ᄉᆞ되마침ᄂᆡ무양ᄒᆞ여이제
나히육십구세라네의명도는엇더ᄒᆞᆫ지모로거니와설령무
귀영화를당ᄒᆞ더라ᄒᆞ여도상히초ᄌᆞᆫ성각을먹고또미
ᄉᆞ의순ᄒᆞᆫ씨를당ᄒᆞ여도마치순치아닌것ᄀᆞᆺ치ᄒᆞ며의식이
족ᄒᆞᆫ씨를당ᄒᆞ여도구챠ᄒᆞᆫ성각을ᄒᆞ며살음이공경ᄒᆞ
고ᄉᆞ랑ᄒᆞ더라ᄒᆞ여도항상공구ᄒᆞᆫ성각을먹고가졔ᄂᆞᆸ고명
망이중ᄒᆞᆯ지라도항상ᄂᆞ고쳔음ᄀᆞᆺ치ᄒᆞ며흑식이ᄌᆞ못
ᄒᆞᆫ여도항상골ᄒᆞ음ᄀᆞᆺ치ᄒᆞ여멀ᄂᆡ조상의덕을포장
ᄒᆞ며각가이부형의허물을덮고우ᄒᆞᆯ로나라은혜를갑

고아리로제집의복을짓으며밧그로사름의급훈거슬건지고
안흐로몸의그른성각을막을지니날마다그른거슬씨ᄃᆞ르
면날마ᄃᆞ허물을고치미오흐로나그른거슬씨ᄃᆞ지모ᄉᆞ흐면
이ᄂᆞ그흐로의ᄆᆞ음을소기미요흐로나허물을고칠거시업
다흐면이ᄂᆞ그흐로의공뷔이ᄌᆞ러지미니현하의죵명준슈
흔사름이적지아니귄마ᄂᆞᆫ몸을ᄃᆞ그ᄆᆡ덕힝이ᄂᆞ루지못
흐고공업이ᄂᆞ르지못흔바ᄂᆞᆫ다만그리져리흐여일싱을
보ᄂᆡ미니운곡선ᄉᆞ의ᄀᆞᆯ은친바명을고친다말이지극
히졍흐고지극히깁흐며지극히올코지극히공번된의
리니맛당이익이공부흐며힘써힝흐고ᄉᆞᄉᆞ로보리
지말나흐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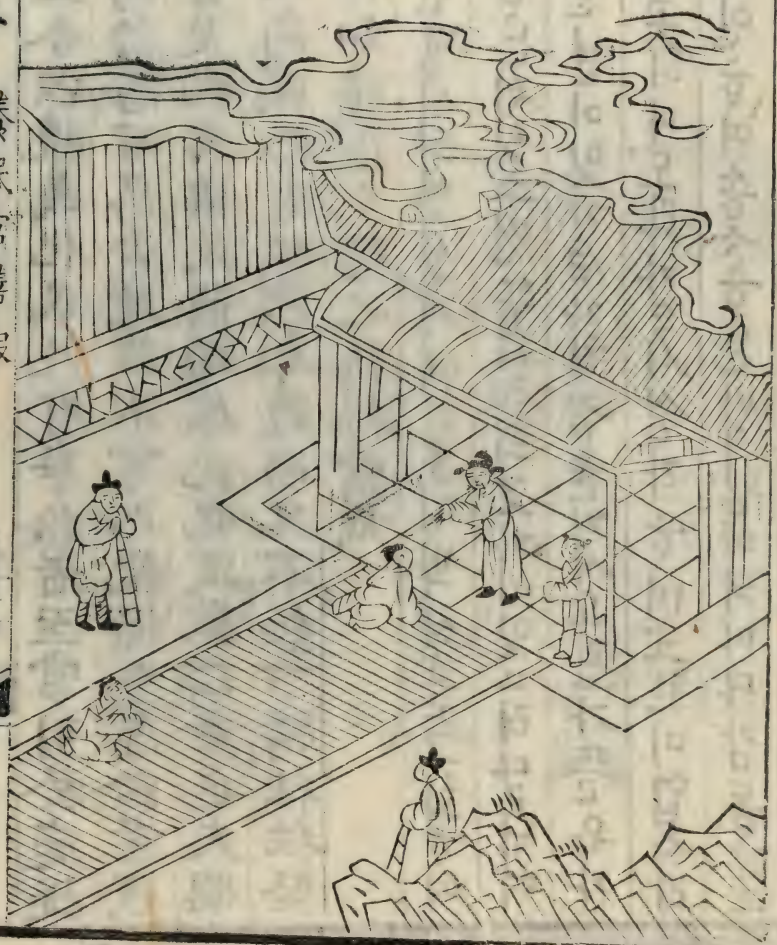
葉夢得

葉夢得在許昌值大水流浮無數公盡發常平所儲賑之全活數萬人獨棄小兒無由得救詢左右曰無子者何不收養曰人固所願但患歲豐年長卽來認去耳公卽立法凡災傷遺兒父母不得復認遂作空券印給於民凡得兒者明書於券付之凡救小兒三千三百餘後官至尚書子亦登第官居極品

셤몽득이허창을직희여더니흉년을당흐여빅셩이뉴샨흐는지라공이상평고의밋힌곡식을내여단흘흐니살닌빅쉬만인이라이셔빅셩이어린아희를보린지무슈흐여길희가득흐여스건을공이구제코져흐되흘길업는지라좌우ᄃᆞ려무러왈ᄌᆞ식업ᄂᆞᆫ사람이엇지겨ᄃᆞ어기르지아니흐ᄂᆞᆫ뇨좌위ᄃᆡ왈이진실노원흐ᄂᆞᆫ빅오나시절이흉

등ᄒᆞ고아회장셩ᄒᆞ면그부뫼도로ᄎᆞᄌᆞ갈가져허ᄒᆞ여슈
양ᄒᆡ못ᄒᆞᆫ이다공이ᄀᆞ의하령ᄒᆞ여왈ᄇᆞ린아희ᄂᆞᆫ그부뫼
ᄃᆞ시ᄎᆞᆺ지못ᄒᆞ리라ᄒᆞ고ᄃᆞᄃᆞ여관가로문셔를만드러아
희거두어기ᄅᆞᄂᆞᆫ빅셩을ᄒᆞ나ᄭᆡᄭᆞ쥬어징험케ᄒᆞ니이러
므로어린아희구ᄒᆞᆫ거시삼쳔삼빅여명일너라그후의
공의벼슬이상셔의니르고그아들이쏘등과ᄒᆞ여벼슬이극
품의니르니라

劉矩



劉矩爲雍丘令以禮義化民凡有爭訟者至常引於庭提耳訓誨以爲忿恚可忍公庭波不可入使歸更思訟者感悟輒各罷去大化其俗民德歸厚此化及獄訟者也夫聽理詞訟本以爲民乃有任法太過而又不知下情往往堅持至死者何如謙虛平恕之爲得情哉

뉴귀옹구현녕이되여시실시녜의로써빅성을교화ᄒᆞ여
ᄆᆞᄅᆞ시징송ᄒᆞᄂᆞᆫ지잇스면ᄯᆞᆯ아랴ᄒᆡᄌᆞ가이잇그려달ᄂᆡ여
ᄅᆞᆯ오ᄃᆡ부ᄒᆞᆫ날이잇거든가히ᄎᆞᆷ을ᄭᆡ시오관가ᄯᆞᆯ은가
히오지아니ᄅᆞᆫ곳이니도라가ᄃᆞ시ᄉᆡᆼ각ᄒᆞ면그ᄅᆞ미업ᄉᆞ리
라ᄒᆞ니일노인ᄒᆞ여송ᄉᆞᄒᆞᄂᆞᆫ빅성이져마다감동ᄒᆞ고
ᄭᆡ드라각ᄌᆞ흐터지니큰교화풍속이되고빅성의덕이
두터운ᄃᆡ도라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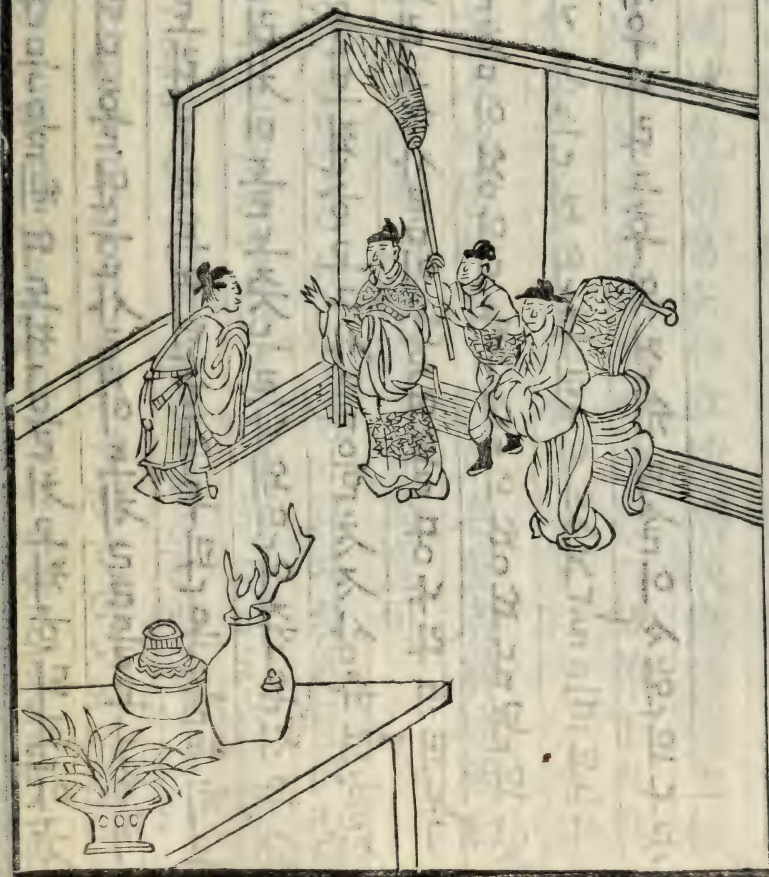
祝乾壽

祝乾壽爲崑山令有善政未嘗枉一人遠近稱之嘉靖時倭犯吳中圍崑山城五十餘日乾壽撫循守禦備至倭人至攻西門已入闉堵乾壽當矢石立樓櫓欲急發樓上板堅不可動忽有持斧至者自稱唐聖連發二板雜下火具壓以巨石倭死者甚衆遂退城得不陷乾壽求持斧者賞之不得其人土著人曰唐時有卜將軍名聖者葬城西南隅求其跡果然遂立祠土山後乾壽官至憲司

츄긴슈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곤산현녕이되여정ᄉᆞ를어질게ᄒᆞ여ᄒᆞᆫ사ᄅᆞᆷ도원통게ᄒᆞᆷ이업ᄉᆞ니원근이칭찬ᄒᆞ더라가정년간의왜병이드러와곤산성을에우니이ᄆᆡ오십여일이라건쉬막고직희믈지극히ᄒᆞ더니왜인이석문을칠ᄉᆡ이ᄆᆡ문ᄆᆡᆺ희ᄂᆡ른지라건쉬시석ᄀᆞ을므ᄅᆞᆸᄉᆞᆫ

셩수의올나판목을씨여도적을치고적흐되판이굿
어셔히지못흐더니홀연흐사람이도치를들고나르러
스스로당셩이로라날ᄀᆞ르며년흐여두판목을셔히고
화구를셔건ᄂᆞ리치며ᄯᆞᆯ노ᄌᆞᆺ누르니왜인이쥭은지무슈
흐더라이ᄆᆡ셩을보젼흐고그사람을ᄎᆞᄌᆞ상쥬려흐ᄉᆡ
ᄃᆞ시보지못흐ᄆᆞᆯ지라그ᄯᆞᆫ사람이고흐여왈당나라ᄉᆡᆨ의복ᄀᆞ
장군이잇셔일흠이셩이니그무ᄃᆞ임이셩셔남편의잇
다흐ᄀᆞᆫᄂᆞ나아가ᄎᆞᄌᆞ니과연무ᄃᆞ임이잇ᄀᆞᆫᄂᆞᆯ드여그산
우희ᄉᆞ당을세우니라그후의건쉬벼ᄉᆞᆯ이ᄉᆞ헌의니르
ᄅᆞᆺ더라

崔廷



魏主以罪徙者多逃乃制一人逋亾闔門充役光州刺史崔廷諫曰一人有罪延及一門則司馬牛受向魋之罰柳下惠嬰盜跖之誅豈不哀哉魏主從之

위나라 적의 사람이 죄의 범홈여 변방의 충군홈군ㅅ의 무리 나라역ㅅ 일을 괴로이 넉여 도망홈는지 만흔지라 조정이 근심홈여 시법을 지으되 홈사람이 도망홈면 그 사람의 온집 사람을 모다 군역을 밧게 홈니 광쥬ㅈㅅ 최정이 간홈여 왈 홈사람의 죄로 일문이 죄를 밧을진ㄷㅣ ㅅ마우의 착홈으로 샹되의 벌을 밧으며 뉴하혜의 성인으로도 척의 죄의 연좌홀지니 엇지 슬프지 아니리 엇가 홈니 조정이 그 말을 올히 넉여 그 법을 힝치 아니홈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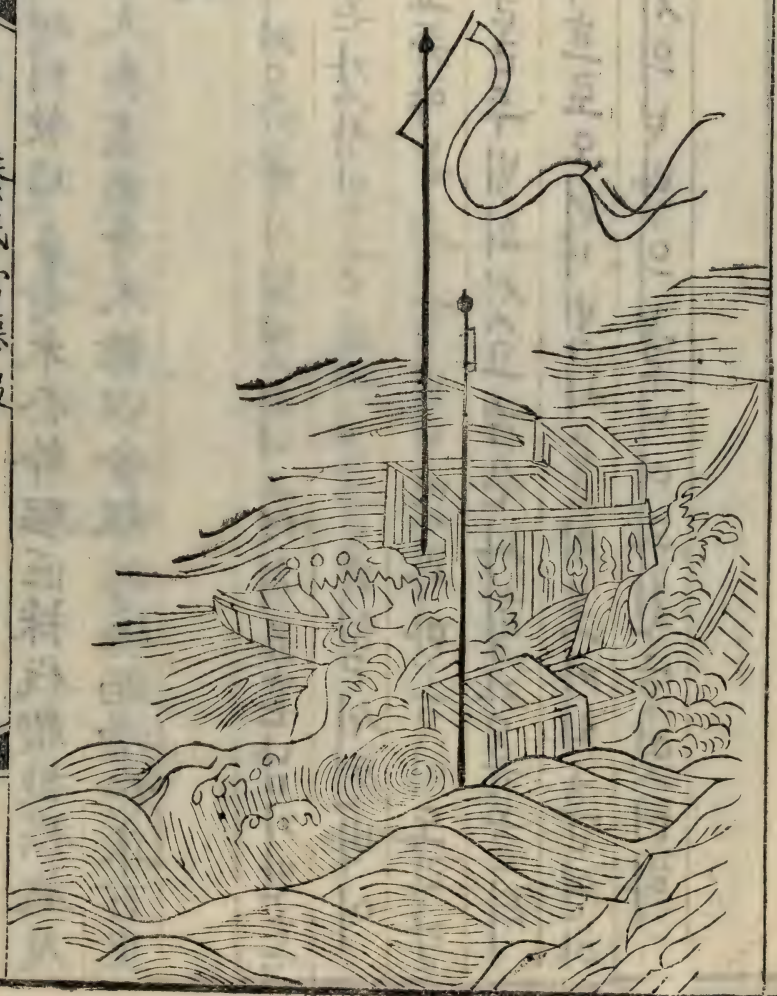
ㅅ마우 뉴하혜는 샹되와 도척의 형뎨라

郭崇義

郭崇義鎭河陽於洛中造一大第凡千餘間皆以文梓爲
梁花石鋪地穿池引水築山種樹周設亭臺無不備具約
費白金五千錠次年被召還都暮抵其第秉燭周覽尚未
及徧時朝會期促不容久駐飾罷少憩侵星而出旣朝復
歸行至東都乃卒不復再至家人不能居轉售他人
곽숭의라ᄒᆞᆫ사람이하양절도ᄉᆞ를ᄒᆞ여시실시낙양ᄭᅳ히
ᄒᆞᆫ큰집을지으니천여간이ᄃᆡᆷ은지라모다문치ᄋᆞᆫ남그로
들보ᄒᆞ고화반석으로ᄯᆞᆯ의ᄲᅡᆯ며물을ᄃᆞ리여ᄃᆞᆫ모슬만들
고흙을ᄊᆞ하뫼를만들며괴화이초ᄂᆞᆫᄉᆞ면으로시므고ᄃᆡ샤누
각을팔방의버러시니아름답고화려ᄒᆞ여소입금은이누
거만의ᄀᆞᆺ가오니이ᄂᆞᆫ빅성을침학ᄒᆞ여탐ᄒᆞᆫ진물이라그
이듬히의조정이부르시ᄆᆡ경ᄉᆞ로올나갈시ᄃᆞᆨ노의그집

의ᄃᆞᄅᆞ니날이ᄉᆞ미ᄭᆡ문지라촉불을들고적이보라가
입조흘괴약이촉박흠을로오리지완티못흥여적이쉬고ᄉᆞ
벽ᄋᆞ니러나길의오ᄅᆞ니그집의모양을치보지못흥여ᄃᆞ러라이
미조회흥고도라오다가중노의서쥭으니그집의ᄃᆞ시니ᄅᆞ지
못흥고그후집사ᄅᆞᆷ이쏘흔능히진이지못흥여라인의게
도라가니라

韋公幹



韋公幹爲瓊州牧瓊多奇木公幹驅匠採伐轉撻橫施及離任具二大舟盡載奇木雜以金銀浮海而歸行未百里二舟俱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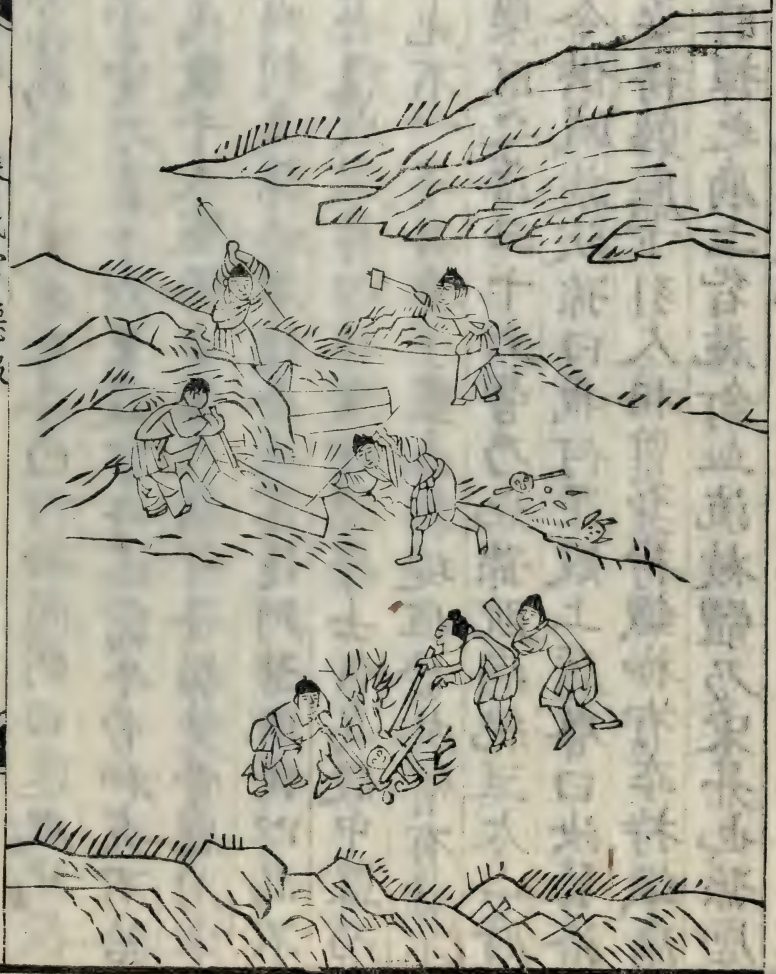
위공간이경쥬목이되엿더니그릇혜죠흔남기만흔지라이의온갓장인을브려남글버힐시편박이낭쟈ᄒᆞ고쥬야독촉ᄒᆞ더니밋과만ᄒᆞ여도라갈제그나무를두빈의싯고금은과힝장을ᄒᆞ여ᄃᆡ실어보라ᄒᆞ로오더니빅니를치못가ᄉᆡ홀연이두빈일시의부람의불니여파션ᄒᆞ엿더라

陳潔

蜀御史陳潔狠戾自恣其淩刑獄專以滾巧爲能每月斷死者百餘人夏暑憩水亭見蟢子懸絲下引手接之卽化爲大蜘蛛嚙其中指痛入骨裏遂拂落階下化爲厲鬼怒詰不已潔乃以指潰而死

촉나라어스벼슬ᄒᆞᆫ진결이모질고ᄉᆞ오나와ᄋᆞᆨᄉᆞ로결단ᄒᆞ미공교ᄒᆞ고각박ᄒᆞ기로능ᄉᆞ를삼으니ᄆᆡ일의죽인지ᄇᆡᆨ여인이라맛침더위를당ᄒᆞ여ᄉᆞᆫ가락의ᄉᆞ피ᄉᆞ이ᄒᆞ더니ᄒᆞᆫ적은버레잇ᄉᆞ이ᄃᆞ으며즉시화ᄒᆞ여큰거ᄆᆡ되여손가락을무니ᄋᆞ래프기ᄲᆡ의ᄉᆞ모차ᄎᆞ려린지라급히덜ᄎᆞ려ᄒᆞ돌아ᄅᆡ려ᄒᆞ지ᄆᆡ화ᄒᆞ여흉ᄒᆞᆫ귀신이되여진결을보ᄆᆡ성ᄂᆡ여ᄭᆞ짓더니진결이일노인ᄒᆞ여손가락이썩어죽으니라

宋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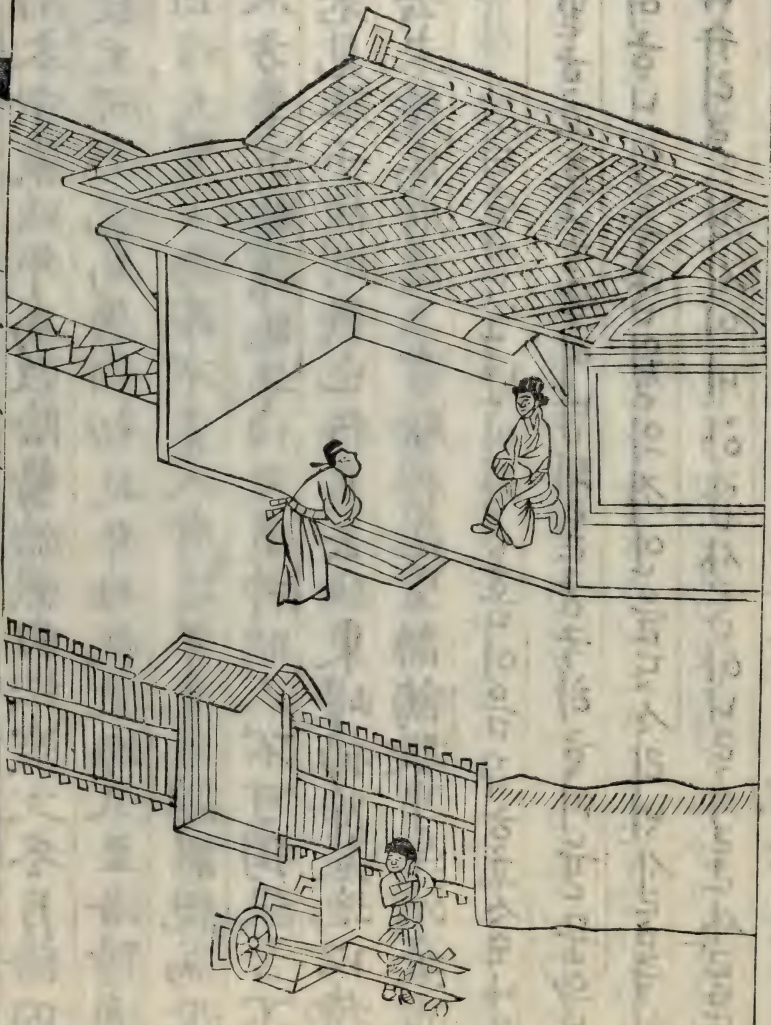
政和初宋昇爲西京轉運專修西內語同列曰速成此役賞可立得宮室乃袤十六里殿宇丹漆需牛骨和灰不給城外有五代數千人塚幹官韓容獻計發掘焚骨應用宋昇然之成州刺史郭璉等迎合其意運判孫貺獨以爲不可引疾罷去役成宋昇以功除顯謨學士名爲殿中監而卒韓容繼死不一年昇妻子盡死郭璉疽發於臀有骨不可坐鑿以藥取之落三十六骨乃死孫貺病絕至太山府獄吏勒入令供滅族狀孫曰我何罪殿上厲聲曰汝發洛陽塚幸賞安得辭廡下引人相質身荷鐵枷有卒持鐵扇視其面時時揮之扇上皆施釘血流被體乃宋昇也孫歷舉去官狀昇屈伏孫更生

정화년간의 송승이라 하는 사람이 서경전운사로 되여서

권을중슈ᄒᆞᆯ시동뇨ᄃᆞ려닐너왈 이역ᄉᆞ로슈이맛ᄎᆞ면상
을밧으리라ᄒᆞ여쥬야동역ᄒᆞᆯ시쳔각의단청ᄒᆞ미칠ᄒᆞᆫ
제구의쇠색ᄭᆞ온가뢰만히ᄃᆞᆫ지라창졸의구ᄒᆞ미엇기어
려오믈근심ᄒᆞ더니 간역ᄒᆞᆫ관원한용이계교로ᄃᆞ려
왈셩밧긔오린고죵슈삼쳔이잇스니그셔로ᄡᆞ쓰미듯다
ᄒᆞ거ᄂᆞᆯ송승이그말을올히넉여ᄀᆞᆯ로ᄒᆞᆯ시셩쥬쟈ᄉᆞ곽
년이쏘ᄒᆞᆫ그ᄯᆞᆺ을맛초와셜니거힝ᄒᆞᆫ지라운판버
슬ᄒᆞ엿ᄂᆞᆫ손황이홀노불가타ᄒᆞ여버슬을ᄇᆞ리고가니
라이ᄆᆡ역ᄉᆞ로맛ᄎᆞ미송승이그공으로ᄒᆞᆫ모ᄒᆞᆫᄉᆞ쳔죵감
버슬을ᄒᆞ엿더니즉시쥭고그쳐ᄌᆞ흠ᄭᆡ쥭으며한용이쏘
이어쥭고곽년은둔죵으로창구의쇠박여안ᄭᆡ못ᄒᆞ고
약을부쳐ᄡᆡᆨ여ᄂᆡ여쇠삼십뉴리를ᄭᆡ히고쥭으니라그

후의손황이병들어죽은지라그혼이뒤산부의니르니귀
졸이쏘아드리며지촉ᄒᆞ여멀족ᄒᆞ는ᄃᆞ짐을올니라ᄒᆞ
거ᄂᆞᆯ손황이무죄ᄒᆞᆷ을고ᄒᆞᆫᄃᆡ젼상의서소릭를놉
혀왈사ᄅᆞᆷ의무덤을파고상을도모ᄒᆞ니엇지죄를면
ᄒᆞ리오ᄒᆞ고ᄋᆡᆯ랑아릭로서ᄒᆞᆫ사ᄅᆞᆷ을쏘아ᄂᆡ여면질게
ᄒᆞ니그사ᄅᆞᆷ이목의ᄉᆡ칼을쓰이고귀졸이ᄉᆡ부치로얼골
을칠ᄉᆡ그부치의ᄉᆡ모슬만히박아치ᄂᆞᆫ곳마다피흘너
일신의가득ᄒᆞ거ᄂᆞᆯ조ᄉᆡ이보니이곳송승이라손황이
이의기시말니ᄃᆞ가못ᄒᆞ여ᄇᆡ술ᄇᆞ리고도라가던송유를
일ᄉᆞ히고ᄒᆞ니송승이굴복ᄒᆞᄂᆞᆫ지라손황은무죄ᄒᆞ
여회싱ᄒᆞ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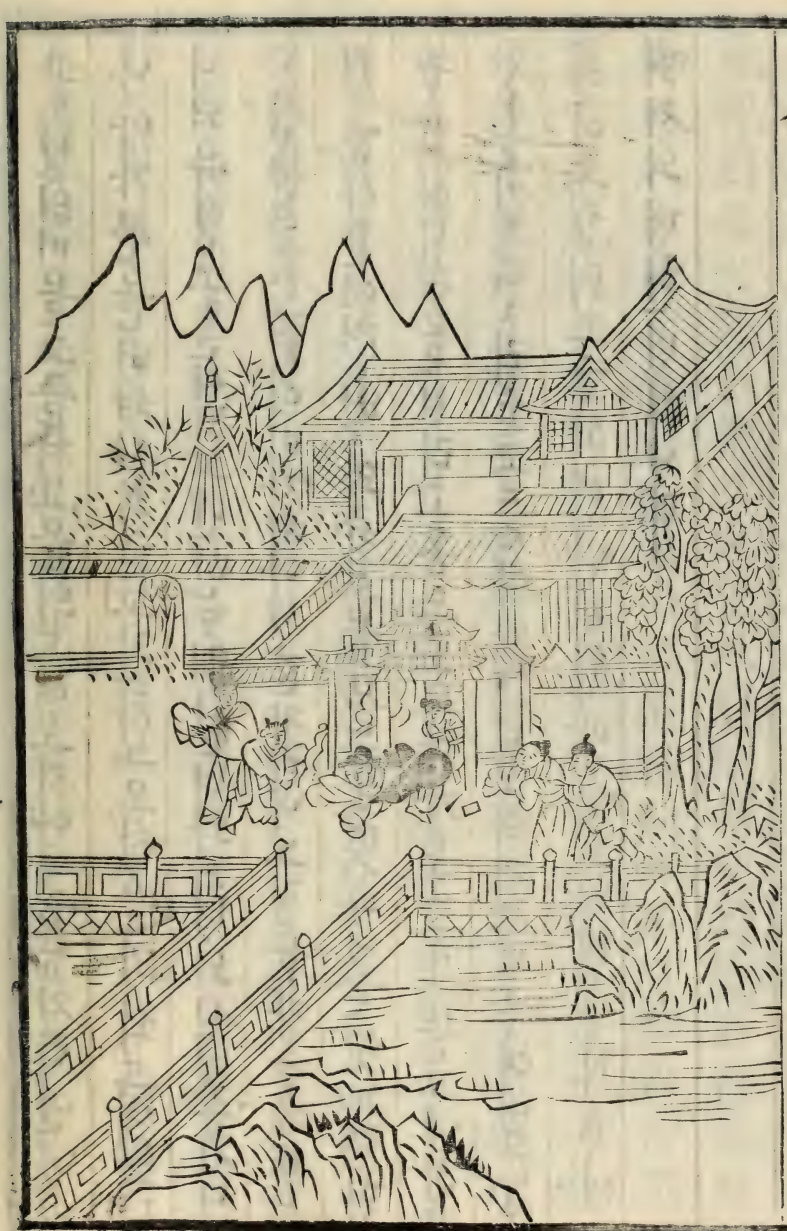
嚴延年



漢河南太守嚴延年爲政陰鷙酷烈曲法深文冬月論囚流血數里河南號爲屠伯初延年母從東海來至洛陽適見報囚母大驚止都亭不肯入府延年免冠謝罪親爲母御乃入方畢正臘謂延年曰天道神明人不可獨殺吾不意當老見壯子被刑戮也行矣去汝東歸掃除墓地以待汝遂去未幾爲府丞上書驗得怨望誹謗數事坐法棄市

한나라하람ᄃᆡ슈임연년이졍ᄉᆞ홈이음ᄃᆞᆨ호고ᄉᆞ오나오ᄆᆡ밍ᄃᆞᆯ호고호ᄃᆞᆨ호ᄆᆡ법졔ᄅᆞᆯ궁ᄀᆞᆨ히호ᄆᆡ뉴문을ᄀᆞᆨ박히호니일ᄌᆞᆨ납일ᄋᆞ의죄인을ᄃᆞ, ᄉᆞ리ᄆᆡ사ᄅᆞᆷ죽인피흘녀슈리ᄅᆞᆯ적시이니하람사ᄅᆞᆷ이니ᄅᆞ, 길ᄅᆞᆯ사ᄅᆞᆷᄃᆞ히ᄂᆞᆫ빅졍이라호, 더라쳐음의연년의모친이동히로ᄌᆞᆺ츠와낙양의니ᄅᆞ러맛ᄎᆞᆷ이러ᄃᆞᆺ치죄홈을ᄇᆞᆯ

고도정의머믈고즐겨고을의드러오지아니ᄒᆞᆫ지라연년이
나아가관을버셔샤죄ᄒᆞ고친히그모친을뫼셔드려왓더
니겨유경조를ᄃᆞ리니고연년드려ᄂᆞᆯ녀왈텬되신명ᄒᆞ시니
사ᄅᆞᆷ을ᄒᆞᆯ노쥭이미가치아니ᄒᆞᆫ지라ᄂᆞ노경을당ᄒᆞ여장
셩ᄒᆞᆫ아ᄃᆞᆯ이혀ᄋᆞ벌의쥭으믈볼쥴ᄉᆞᆺ아니ᄒᆞ엿ᄂᆞ라힝
ᄒᆞᆫ지어다녀ᄅᆞᆯ보ᄅᆞ리고동으로도라가분묘ᄅᆞᆯ쓸고네힝
상을기ᄃᆞ리ᄉᆞ라ᄒᆞ고ᄃᆞ여가ᄉᆞ니오ᄅᆞ지아니ᄒᆞ여마을아
ᄅᆞᆫ이조정의고ᄒᆞ되연년이원망ᄒᆞ고비방ᄒᆞ다ᄒᆞ여
거저의버ᄒᆞᆫ비되ᄂᆞ라



邵知府

嘉靖中郡守邵某機警有小才多佃魚於民詭稱給餉暫
借銀充庫令掾吏持券遍貸富民實盡乾沒無償及歸裝
槖充盈田園甲第炫燿一時一日造石坊賀者塡門方出
送客坊石墮下壓死

가정년간의군수소뫼긔경ᄒᆞ고적은지죄잇ᄉᆡ빅셩
을침노ᄒᆞ을ᄉᆡ속여니로ᄃᆡ상ᄉᆞ의졈고맛기로잠간빅셩
의금은을빌어고ᄅᆞᆯ치오리라ᄒᆞ여아젼으로ᄒᆞ여곰문권을
만들어두루부민의지물을ᄭᆞ어드리니기실은ᄉᆞᄉᆞ로가지미라
밋도라갈ᄉᆡ낭탁이가득ᄒᆞ고젼원과졔택이일ᄉᆡ의회쟈
ᄒᆞ더라일ᄉᆞ은돌을ᄃᆞᆫ마문의차면을만들엇더니맛초아
손을보ᄂᆡ노라문의나오ᄉᆡ차면돌이업더ᄅᆡ인ᄒᆞ여눌니여
죽으니라

張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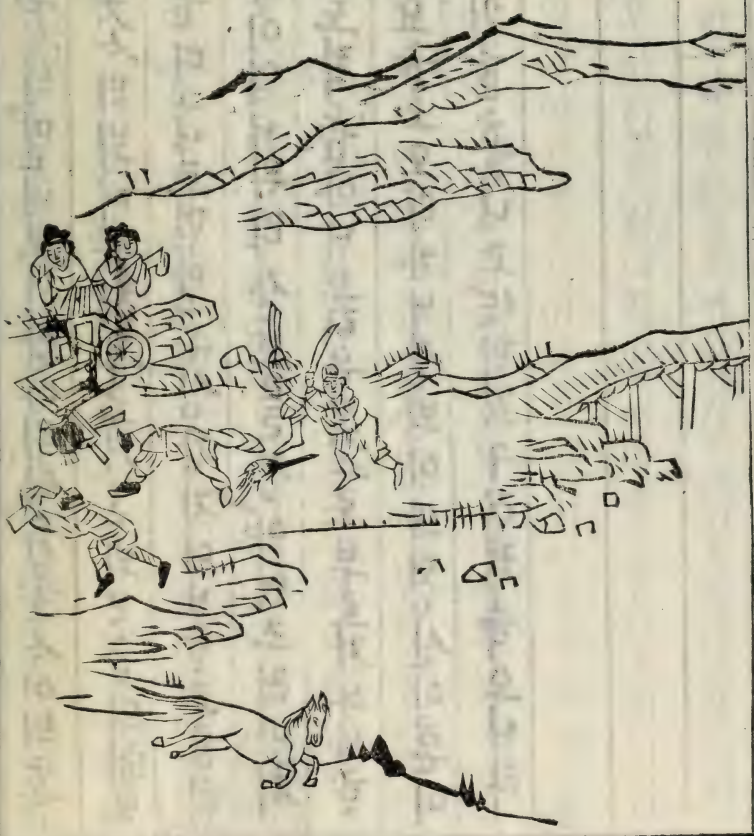
張寶知成都有華陽李尉妻美貌擅名蜀中寶欲私之徧
託尼姑奶子密諭此意久之妻亦有心而李尉適以貶敗
寶因劾奏送獄治罪竄嶺外死於路寶厚賂尉母強而娶
之歡樂不捨無何婦病恍惚見李尉在傍未幾死寶亦得
病夢婦告曰妾感公恩不敢不報尉已訴於上帝旦夕取
公若婆居未必得便苟或輕出必爲所執寶覺而誌之一
日暮坐遥見堂下竹間有一紅袖招之意謂尉妻偶忘其
告疾趍急赴乃尉也毆寶罵曰你這賊子不以紅袖招搖
汝肯來乎良久口鼻出血倒地而死

장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셩도의자시되엿더니그부ᄂᆡ화양현ᄀᆞᆯ
현위ᄂᆡ모의쳬아ᄅᆞᆷᄃᆞᆫ조석이촉중의쳔명ᄒᆞᄂᆞᆫ지라
장뵈ᄉᆞᄃᆞᆼ코ᄀᆞᆫᄒᆞ여ᄃᆞᆨᄅᆞᄂᆡ고와ᄆᆡ파ᄅᆞᆯ시겨가만이ᄀᆞᄂᆞᆺ으로ᄃᆞᆯ

ᄂᆡᄂᆡ이ᄆᆡ날이오ᄅᆡᆫ지라ᄋᆡ취ᄯᅩ흔ᄆᆞ음ᄋᆡ허락ᄒᆞ엿더니
마초아니ᄋᆡ적은죄ᄋᆡ범ᄒᆞ엿ᄉᆞ거ᄂᆞᆯ뵈인ᄒᆞ여조뎡ᄋᆡ알외
고하옥치죄ᄒᆞ여멀니귀향보ᄂᆡ니가ᄂᆞᆫ가길ᄋᆡ셔죽은지
라장뵈이ᄋᆡ후ᄒᆞᆫ회뢰로ᄭᅮᆨ니ᄋᆡ의어미ᄅᆞᆯ달ᄂᆡ고ᄋᆡ의취
ᄅᆞᆯ억지로취ᄒᆞ여쥬야로즐기더니오ᄅᆡ지아니ᄒᆞ여그계집
이홀연이병을엇어누엇실ᄉᆡ황홀중ᄋᆡ계지아비니ᄋᆡ
ᄀᆞᆺᄒᆞᆫ잇거ᄂᆞᆯ크게놀나인ᄒᆞ여죽고장뵈ᄯᅩ병이들어누엇
더니ᄭᅮᆷᄋᆡ그계집이ᄂᆞᆯ러ᄀᆞᆯ오ᄃᆡ컵이롱ᄋᆡ은혜ᄅᆞᆯ감격
ᄒᆞ여아니고ᄎᆡ못ᄒᆞᆫᄂᆡᄂᆞᆺᄋᆡ이ᄆᆡ샹졔ᄉᆡᆨ하소연ᄒᆞ엿ᄉᆡ
ᄆᆡ오ᄅᆡ지아니ᄒᆞ여공을잡힐지라만일깁히숨어잇ᄉᆞ
면화ᄅᆞᆯ면ᄒᆞ려니와혹가ᄇᆡ야이나온즉필경잡힌ᄇᆡ
되리라ᄒᆞ거ᄂᆞᆯ뵈놀나ᄭᆡ여상ᄒᆞᆫ떠ᄉᆡᆷᄒᆞ고나오지아니ᄒᆞ

더니일ᄌᆞ은황혼시의멀니보니당아리ᄃᆡ슈풀ᄉᆞ이의홀
연계집의붉은옷ᄉᆞᄆᆡ뵈며손쳐부르거늘뵈ᄆᆞ음의혜오
ᄃᆡ그계집이온가ᄒᆞ여그니르면말은싱각지아니ᄒᆞ고급히
나와ᄌᆞ가이본즉이의니의라장보ᄅᆞ잡아어즈러이치
며ᄉᆞ지ᄭᆞ왈너이도적놈아니붉은옷ᄉᆞ로부ᄅᆞ지아니ᄒᆞ
면네엇지나오리요ᄒᆞ고모라가니장뵈이의ᄭᆞᆼ신이혼미
ᄒᆞ여이목ᄉᆞ비로피ᄅᆞᆯ흘니고ᄭᆞ히것ᄉᆞ러져죽으니라

李緒



李緖知永安軍時大盜方起緖恐及禍乃薦范鋼代已又是鋼知永安緖遂解任未幾盜破永安范鋼舉家遇害又未幾李緖改調臨安路逢強盜亦舉家遇害

니셔라ᄒᆞᆫ사ᄅᆞᆷ은영안군을ᄃᆞᆺᄉᆞ릴ᄉᆡ이ᄉᆡᆨ의ᄃᆞᆫ해ᄇᆞ야ᄒᆞ르어ᄌᆞ러워그ᄀᆞᆫ처의ᄀᆞᆫ도적이ᄂᆡ러나ᄂᆞᆫ지라ㅣ세화의ᄆᆡᆺ츨가두려범형으로ᄭᆡ조정의ᄎᆞᆫ거ᄒᆞ여ᄀᆞᆺ을ᄃᆡ신ᄒᆞ게ᄒᆞ니이의범형이영안의도임ᄒᆞ고ㅣ셔ᄂᆞᆫ벼ᄉᆞᆯ을갈아도라갓더니오ᄅᆡ지아니ᄒᆞ여도적이영안을파ᄒᆞ니범형의일개모다ᄒᆡᄅᆞ를만낫더라그후오ᄅᆡ지아니ᄒᆞ여ㅣ세ᄎᆞ벼ᄉᆞᆯ을고처남안으로갈ᄉᆡ길의ᄉᆡ강도ᄅᆞ를만나일실이ᄎᆞᆫᄒᆞᆫ

ᄒᆡᄅᆞ를ㅣ남으ㅣ라

梁緯

孝直漢景帝時爲長安令志性清慎政聲遠聞所乘馬日行五百里雍州刺史梁緯與帝連婚強索其馬不獲密搆人誣直受贓下獄直使人告妻子曰刺史陰謀欲奪我馬汝等幼弱未能申雪我死可將紙筆置棺中以便奏白果死獄中家人如所囑後旬日帝大會羣臣直於殿前上表曰臣少忝官途頗彰清慎不謂刺史梁緯心縱貪婪勢連內戚欲臣所畜之馬加臣枉死之刑上訴皇天許臣雪冤用敢以聞幷梁緯不法二十一條粘狀尾景帝覽表訖忽不見甚以爲異詔收梁緯下獄勘詰枉殺孝直及諸款事事不虛詔將梁緯往孝直墓前斬而祭之追贈直尚書郎時人爲之語曰莫言鬼無形杜伯射宣王莫言鬼無身孝直訟生人

효직이는한경제씨사람이니장안녕이되여성품과정
서믜고삼가니칙이원근의들니더라라는말이ᄌᆞ서일ᄌᆞ
의오빅니를힝ᄒᆞ는지라옹쥬쟈ᄉᆞ냥의는황제의인친
으로위권을유세ᄒᆞ여그말을구청ᄒᆞ라가엇지못ᄒᆞ오가
만이죄를얼어효직을모함ᄒᆞ여옥의ᄂᆞ리우니효직이
사람을부려그쳐ᄌᆞ의게고ᄒᆞ여왈쟈ᄉᆞ냥의ᄂᆞ말을아스려
ᄒᆞ여가만ᄒᆞ쓰로날을쥬이려ᄒᆞ니ᄂᆞ희어리고약ᄒᆞ여가
히셜원치못ᄒᆞ을지라ᄂᆞ쥬은후관속의지필을ᄂᆞ흐라ᄂᆞ
맛당이상소ᄒᆞ여셜원ᄒᆞ리라ᄒᆞ고인ᄒᆞ여옥중의ᄉᆡ죽으
니집사람이그말ᄃᆡ로ᄒᆞ엿더라그후ᄉᆞ일의상이크게군신을
조회ᄒᆞ실ᄉᆡ효직이전압희잇서표를올니ᄌᆞ기표의왈신이
어려서환노의모침ᄒᆞ여ᄌᆞ못청신ᄒᆞ은일홈이잇습더니

옹쥬자ᄉᆞ냥위탐심이무염ᄒᆞ며ᄂᆡ칙의형세를밋고신
의말을아스려ᄒᆞ여의ᄆᆡ히신을쥭엿기로황뎐의할와신
의셜원홈을허ᄒᆞ실ᄉᆡ감히뷔알외며금ᄒᆞ여냥위의불법
ᄒᆞᆫ죄이십일조를쳡년ᄒᆞ여알외ᄂᆞ이라ᄒᆞ엿거ᄂᆞᆯ상이표
를보실ᄉᆡ효직이홀연간ᄃᆡ업ᄂᆞᆫ지라상이ᄀᆞᆯ오ᄃᆡ
이샤냥위를ᄀᆞᆯ두어하옥ᄒᆞ고힐문ᄒᆞ시ᄂᆡᄉᆞᄉᆞ이헛ᄃᆡ지아
닌지라됴셔ᄒᆞ샤냥위를가져효직의무뎜ᄋᆞᆯ희나아가그
머리버혀ᄃᆡ뤼ᄒᆞ고효직으로상셔랑을츄증ᄒᆞ시ᄂᆡ이셔사
름이말ᄒᆞ여ᄀᆞᆯ오ᄃᆡ귀신의형용이업다말ᄒᆞᆫ지말나두
ᄇᆡᆨ이션왕을뵈앗시며귀신의몸이업다말ᄒᆞᆫ지말나
효직이샨사름을송ᄉᆞᄒᆞ엿다ᄒᆞ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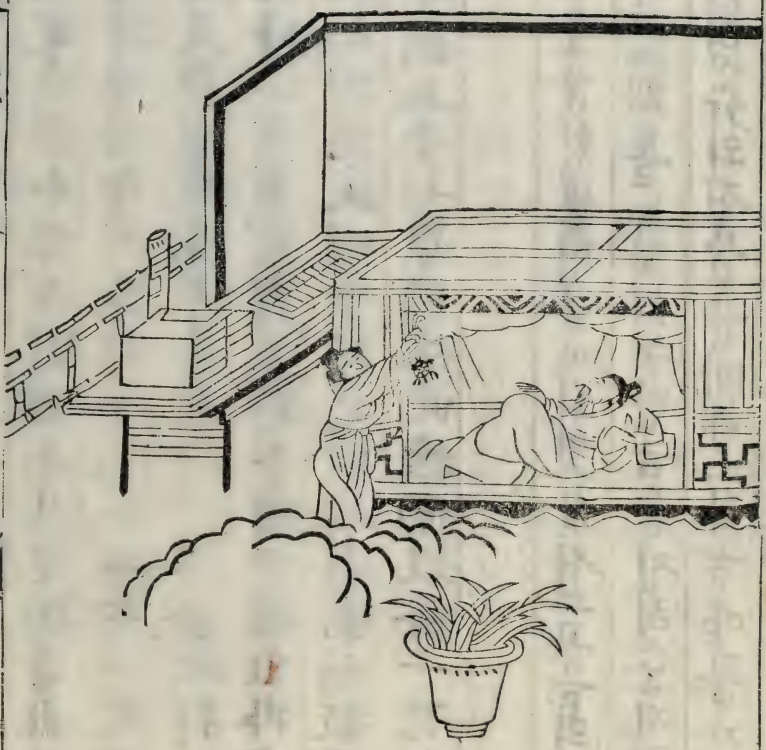
許某

許某於順治四年從大兵入廣遂授一令是時聲教初敷
新附之民在城中者皆遵新制而山鄉村民多不剃髮適
兵牧擒解長髮百姓十四名其實皆愚民非強盜也許某
即以盜申解帥府并殺之殺之時當正午刻是日也許家
眷來署未至縣治百餘里乃遇眞盜罄掠行李亦殺男女
十四口恰在午時許某口述其事於諸生黃建等彼時黃
建亦爲廣東學官

허뫼슌치ᄉᆞᆫ의ᄃᆡ병을조ᄎᆞ광동ᄇᆞᆫ히ᄃᆞ리갓ᄃᆡ니ᄋᆞᆫ동ᄒᆞ
ᄒᆞᆫ현령을ᄒᆞᆼ여ᄃᆞ라이ᄉᆡ의와왜ᄎᆞ음으로ᄒᆞᆼ호ᄉᆡᄉᆞ로ᄇᆞᆺ
ᄌᆞᆺ ᄇᆡᆨ성이ᄉᆡᆼ중의ᄋᆞᆺ ᄂᆞᆫ조ᄂᆞᆫ시법을조ᄎᆞ시되산ᄀᆞ사ᄅᆞᆷ
과향촌ᄇᆡᆨ성은오히려머리를ᄭᆞᆨ지이니ᄒᆞᆫ여ᄃᆞ디ᄆᆞᆺ ᄌᆞᆷ군
시잇ᄉᆡ머리ᄭᆞᆨ지아니ᄒᆞᆫᄇᆡᆨ성십ᄉᆞ명을잡아오니이ᄂᆞᆫ

라니모로도우민이오나라반흐도적이아니언로허뫼
의력으로도적이라흐여슈부의보니여모다쥭이니이
는정히오시되여더라이날허모의니힝이고을노올시그
고을의못맛츰을빅여리즈음흐여홀연이강도를만나
힝장을다아이고남녀십스인이적슈의쥭으니그쒸는
또흐오시라정히십스명빅성쥭이던그날오시와흐
날흐시오인명슈도또흐ᄉ가지라허뫼그날을쒸성황
진등ᄃ려말흐니기시황진이광동흑관으로이날을
ᄌ쉬히쳔흐니라

狄知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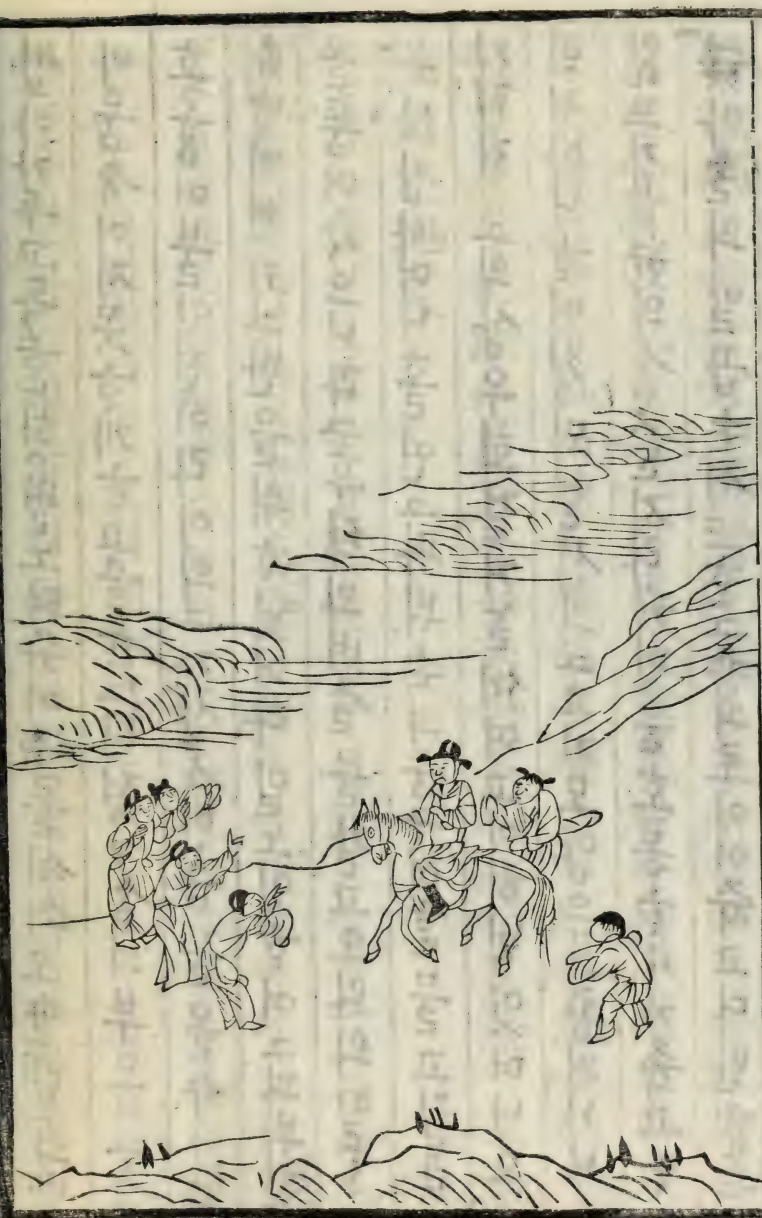


溧陽狄某任雲南定遠縣令縣有富翁死其妻擁資數萬叔欲爭之訟於縣密囑曰卽判斷以半爲酬狄拘其嫂酷刑拷訊至鋏釘釘足熱水澆乳悉奪所有四萬金狄得二萬嫂賫恨以死狄歸一日晝寢忽見婦手持小團魚掛床上未幾遍體生疽如團魚狀以手按之四足俱動痛徹骨髓晝夜呼號踰年死五子七孫俱生此疽而歿餘一孫無立錐之地矣

놀양사람적모는운남정원현령이되엿실시그고을의부민이잇더니이미죽고그쳐홀노잇서누만금을진혀스지라급부민의아우잇서형슈의지물을쎄아스랴ᄒᆞ야관가의소ᄉᆞᄒᆞ로서가만이적모의게말을드려닐오되그지물을아슨후분반ᄒᆞ여드리리라ᄒᆞ니적모크게깃거과부를

잡아가두고독훈형벌노적쥬어무를쇠쇠모슬발의박
아움죽이지못ᄒᆞ게ᄒᆞ고물을쓰려젓ᄀᆞᆷ의부으니그ᄎᆞᆷ
혹ᄒᆞᆷ이불인견이라이의그가샨ᄉᆞ만금을몰슈이달
취ᄒᆞ여적뫼그반을취ᄒᆞ엿더라일노인ᄒᆞ여그과부한
을품어쥭으니라그우적뫼벼슬을갈고도라와일ᄉᆞ
은낫잠자더니홀연그과뷔손의둥구러ᄒᆞ물고길을
가져적모의상우의걸거놀ᄭᅵ여고이히넉엿더니오
리지아니ᄒᆞ여적뫼일신의그고기모양으로죵리나니
암ᄇᆞ프기골슈의ᄉᆞᄆᆞᄏᆞ지라슈년을호통ᄒᆞ다가쥭고ᄌᆞ
ᄉᆞᆺ아들과일곱손지ᄯᅩᄒᆞ그죵리로이어쥭고다만ᄒᆞ손
지잇ᄉᆞ뉴리ᄀᆡ걸ᄒᆞ니라

鄭清臣



宋鄭清臣爲槐里令虐使小民任滿歸民遮道唾罵清臣
以部民侮長官奏聞眞宗曰爲政在得民心民心如此爾
政可知遂坐貶

송나라 뎡쳥신이 괴리 현녕을 ᄒᆞ여 ᄉᆞᆯ시 빅셩을 잔포ᄒᆞ여
학정이 심히 만ᄒᆞ더니 밋과 만ᄒᆞ여 도라올 시 모든 빅셩이 길
을 막고 츰밧하ᄉᆞ 지즈며 욕ᄒᆞᆷ을 마지아니ᄒᆞ니 쳥신이 붓그
리고 분히 녁여 졔고을 빅셩이 관쟝 업슈이 넉이는 죄로 써
쥬문ᄒᆞ니 진죵이 글으ᄉᆞ 사ᄅᆞ 치민ᄒᆞ는 졍ᄉᆞ는 졔일 빅셩
의 인심을 어들 거시어늘 이졔 민심이 ᄀᆞᄌᆞ ᄒᆞ니 네 졍ᄉᆞ
를 가히 알 니로다 ᄒᆞ시고 드ᄃᆞ여 폄ᄒᆞ여 ᄂᆡ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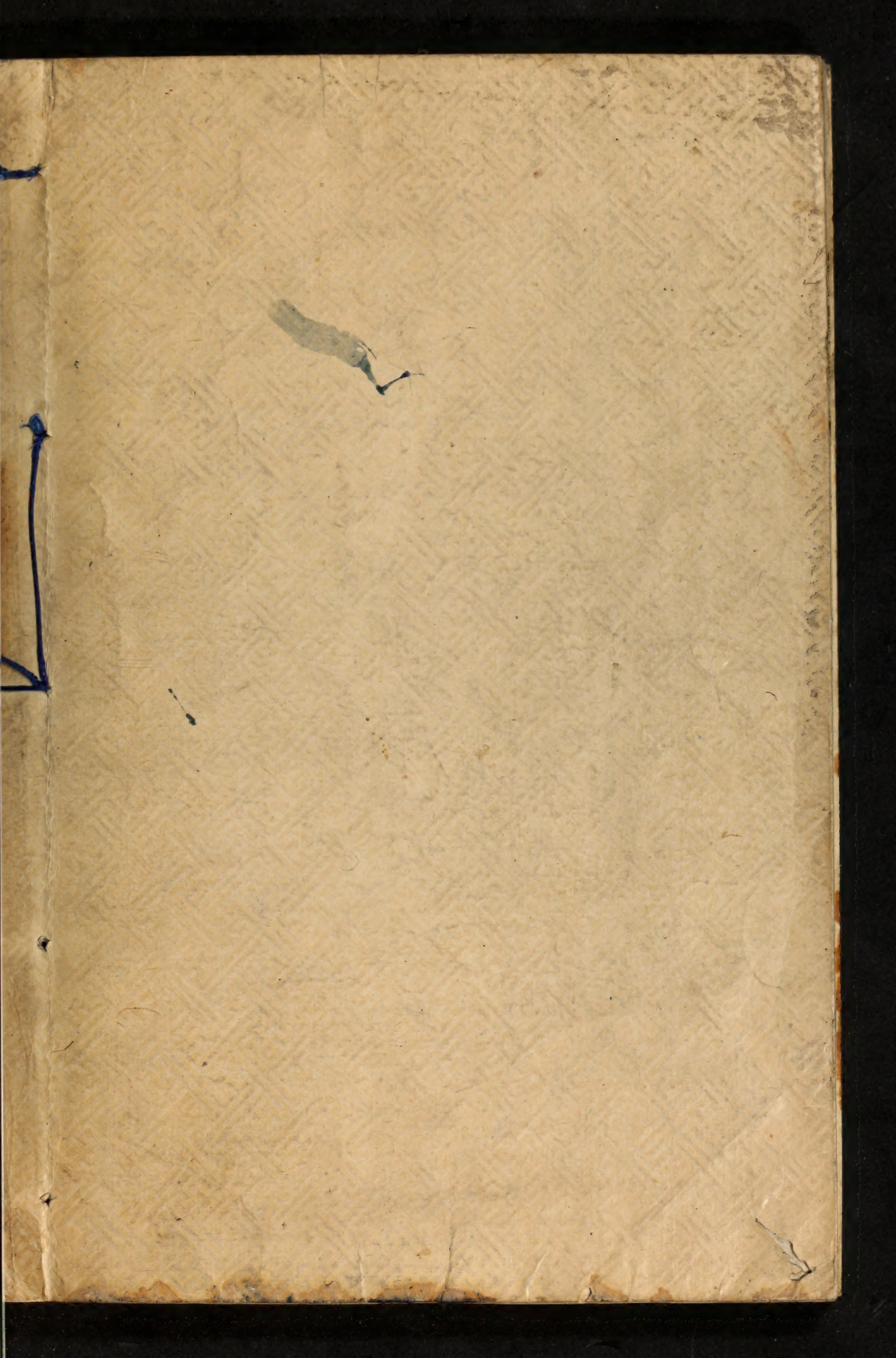
黃同知

元廣州黃同知夫婦寢病異榻其妻夢吏執公文引數卒持鎖揭帳如擒捕狀曰此非也遂過對榻曰是也夫婦俱驚覺夫曰我必死我招安時多殺無辜今皆至矣逾日死

원나라광쥬황동지의부뷔흠씨병들어각ㅅ상의누엇더니그쳐의꿈의혼아긴이공문을가지고두어군ㅅ로더부려갈과슈족ㅈ음우ㄴ자음울쇠ㄹ가지고쟝을들고ㄷ려오니맛치사ㄹ람잡ㅂ려ㅎ ㄴ모양이라이ㅇ이보ㄷ가니ㄹ되이ㄴ그사ㄹ람이아니라ㅎ고져편상으로가ㄷ니ㄹ되이진짓그사ㄹ람이로다ㅎ거ㄴ놀ㄴ나서여그지아비ㄹ려ㅎ여ㅈ음말을ㄴ날을ㅅ황동지ㄹ로오ㄷ니반ㄷ시죽으리로다ㄴ전일초안ㅎ을제무죄ㅎ은사ㄹ람을만히죽여ㅅ시ㅁ로이제모다ㄴ ㄹ렷다ㅎ더니그이튿날죽으니라

王通判

浙省廣濟軍歲差殷實戶充役庫子以司出納有一家役用官錢無可爲償府判王某素號殘忍乃拘其妻妾子女於官不足抵完遂以小舟載入西湖令陪客以貲納官鮮于樞傷之作湖邊曲曰湖邊蕩槳誰家女綠慘紅愁着不語低徊忍淚傷郎船貪得纏頭張歌舞玉壺美酒不須憂魚腹熊蹯棄如土陽臺夢短匆匆去鴛鎖生寒愁日暮安得義士擲千金遂令桑濮歌行露後府判子孫亦世世爲娼矣

절강성광제군의히마다가음열고창실흔빅성을갈희여창고ㅈ를시겨젼지를출납ㅎ게ㅎ더니이뒤흔빅성이잇셔창고ㅈ의샤힌지라관젼을출납ㅎ미ㅈ연이범용ㅎ니그쉬이미만코가산이당진ㅎ여갑흘길이업

는지라 그고을 동판왕 뫼본디 성품이 잔인 ᄒᆞ여 형식ᄌᆞ
못각박 ᄒᆞ더니 그빅성의 처첩과 ᄯᆞᆯ을 잡아 관가의
속공 ᄒᆞ여 ᄉᆡ되오히려 그갑시 부족 ᄒᆞ은지라 이의 적은 빅
로써 그녀ᄌᆞ를 실어 셔호의 보내여 곡을 격고 돈을 벗으려
관가의 드리게 ᄒᆞ니 그 참혹ᄒᆞ 음을 니로 긔록지 못 ᄒᆞ을 너
라 그후 동판의 ᄌᆞ손이 또 ᄒᆞ은 되ᄌᆞ로 창녀되니라